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제753호>
1999년 12월 6일(월)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김상배 인쇄인 정호정 인쇄처 홍우주 신문사 961-4151, 962-7126 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266 FAX 961-4153 : 8인 0335-330-4112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270도 울산시 오남면 동서리 산 50

3 사진뉴스
99 정기 학생조합원 총회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둘러싼 교수들이 맡고 있다는데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일까?

5 제1면
조지프 월. RA1335499.
비무장지대 철책안에서 찾아낸 인식표에 적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찾기위한 노력을 몇달째 벌였는데, 과연 인식표의 주인을 찾았을까?

6 주제기획
선거를 벗긴다- 중방부를 향해 치닫는 2000학생회 선거분석, 빠짐한 설문·자료조사와 함께 디가깁니다.

8 생활탐방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 배움터 구성원들의 '문화적 욕구'는 얼마나 수용되었으며 어떻게 발현되었나? 8면을 펼치면 그 해답이 보인다지요....

10 학술뉴스
5개의 특권? 국가보안법이 누려왔던 특권을 이제는 박탈합시다!

11 사회면
아- 잠났다. 경제대통령! 미국놈들한테 몽땅 팔아치우는구나. 푼돈에 기업 팔고, 땅 팔고, 김치 팔고, 우리 목숨도 내다파는구나. 알씨구나, BUY-Korea!! 미국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총학생회 선거 무효결정, 용인- 공개 사과문 발표

서울 중복투표 사실 발견, 내년 3월 재선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1번측에 부정 선거 사실이 밝혀져 선거에 대해 무효결정이 내려졌다. 당선됐던 기호 1번 구준회(상경·무역 4)- 이강산(동양·중국어 3)조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에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대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는 1월 1일부터 총학생회 재선거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총학생회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화) 대자보를 통해 선거 이틀 째 저녁이 끝나도록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자 1번측 선거운동원 중 99학번 한 학생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투표한 과 친구를 다시 한 번 투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기호 2번측에 의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나 기호 2번 후보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를 알리는 공고문에 선거무효 사유로 '중복투표'임을 밝히자 단순한 '중복투표'가 아닌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호 1번측은 한때 조직적인 부정이 아닌 한 선거운동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을 1번 선거운동원 전체가 잘못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정선거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도 보였으나 결국 양 선거운동본부간에 합의를 통해 3일(금) 사실을 밝히는 대자보만을 각자 붙이면서 끝내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기호 1번 부총학생회장으로 나온 이강산군은 "어쩌든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느꼈으며 사퇴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 선거운동원 이름이 밖으로 나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호 2번 후보측은 "단순한 중복투표가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선거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선거무효가 중복투표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인 이상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시행세칙에는 투표를 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학생증을 놓고 왔다고 하며 학번과 이름만 대면 투표를 할 수있도록 한 것이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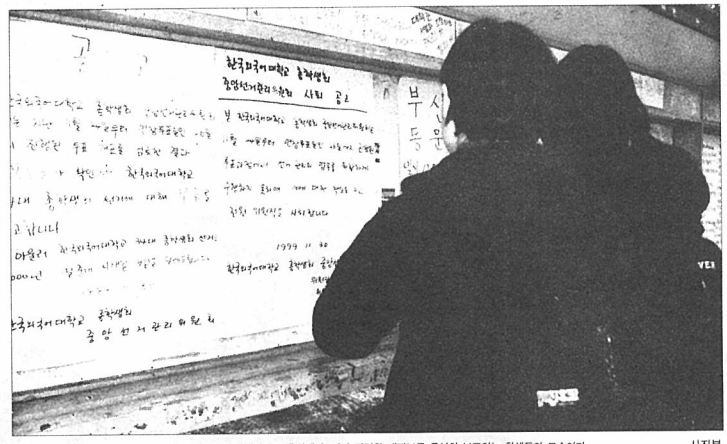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자 학생들은 학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영균(사회·정치외교 4)군은 "비록 한 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부정선거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재선거를 통해 정당한 학생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지인(동양·마인어 4)양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된 것은 선거에 나선 후보가 모두 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학생 역시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 같다. 학교 전체적인 문제이다"고 말했다.

용인 지난 달 24일(수)부터 25일(목)까지 양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중 교양관 투표소에서 중복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처음으로 제기한 용인배움터 기독교 동아리 스카(SCA)측은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날 각 단대 기표소가 아닌 교양관에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개수와 장소에 대해서는 선거운영위원들의 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세칙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 "마지막 날 교양관에 설치한 것은 투표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동헌(동구·헝가리어 4)군의 연행으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과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해 중복투표의 여지를 남긴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류재석.우혜나 기자



기호 1번측의 부정선거로 인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무효화됐다. 이와 관련한 대자보를 유심히 보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사진부

양배움터 3개 단대서 학생회장 선출

서양학대 학생회장에 기호 1번 김태규(영어 3)군이, 자연대 학생회장에 유영준(물리 2)군이 각각 당선됐다.

서양학대는 지난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양일간 진행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율(40%)이 미달돼 3일까지 연장선거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총인원 1426명 중 591명이 투표, 투표율 41.3%를 기록한 가운데 기호1번 김태규군이 310표(득표율 52%)를 얻어 기호2번 박지선(서반아어 4)양을 4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김태규군은 "말한 것만큼은 꼭 지키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자연대 또한 지난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양일간 선거를 진행, 총인원 955명 중 496명이 투표 해 투표율 51.9%를 기록했으며 찬성 405표(82%), 반대 77표(18%)로 유영준(물리 2)군이 선출됐다.

한편 정보산업공과대와 동유럽대는 예정대로 6일(월)부터 7일(화)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동유럽대(건)는 지난주에 후보등록을 한 정태경(루마니아어 2)군의 사퇴로 지난 4일(금) 이길표(폴란드어 3)군이 재등록 해 사실상 후보자가 바뀌었다. 동양학대 또한 단독 입후보한 윤미정(아프리카어 3)양이 갑작스럽게 사퇴해 선거일정을 재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배움터 상경대 학생회장에 민부기(경제 2)군이 당선됐다. 지난 2,3일(금) 이틀간 진행된 선거에서 재적인원 998명중 465명(46.6%)이 투표해 397표(85.4%)의 찬성을 얻어 상경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개표 직후 민군은 "선거운동원들이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항상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생활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우혜나, 박수용 기자

서울지역 결의대회 열려

지난 4일(토) 용산주한미군기지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IMF신탁통치 청산, 고엽제 살포·대학살 민행주범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각계 사회·민주단체 관계자와 학생 200여명이 모여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일(금) IMF 관리체제 2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미국의 경제침탈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노근리를 비롯 한반도 전역에서 양민학살을 자행한 미군이 최근 60년대 말 이땅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국회의 기만적인 행각을 비판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모아지기도 했다.

▶ 관련기사 11면

김검신 기자 jaju97@hanmail.net

오는 10일(금) '2차 민중대회' 개최

지난달 14일(일) 진행됐던 '99 1차 민중대회'에 이어 오는 10일(금)에는 '2차 민중대회'가 진행된다.

'생존권 사수, 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철폐, 농가부채 완전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기치로 진행되는 이번 2차 민중대회는 IMF 신탁통치 2년에 접어들면서 20대 80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며 심각하게 제기되는 민중의 생존권 보장 문제와 공기업 해외매각, 지난 30일부터 진행된 뉴라운드를 통한 농수산물 전면개방 문제 등이 핵심사안으로 떠올라 노동자, 농민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권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1차 민중대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이번 2차 민중대회에서는 미국에 의한 경제침탈과 김대중 정권의 사대매국적인 행각을 규탄하는 등 본질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중대회 이후 진행되는 명동성당 집회에서 주한미군철수의 내용들도 민중들과 함께 힘있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검신 기자 jaju9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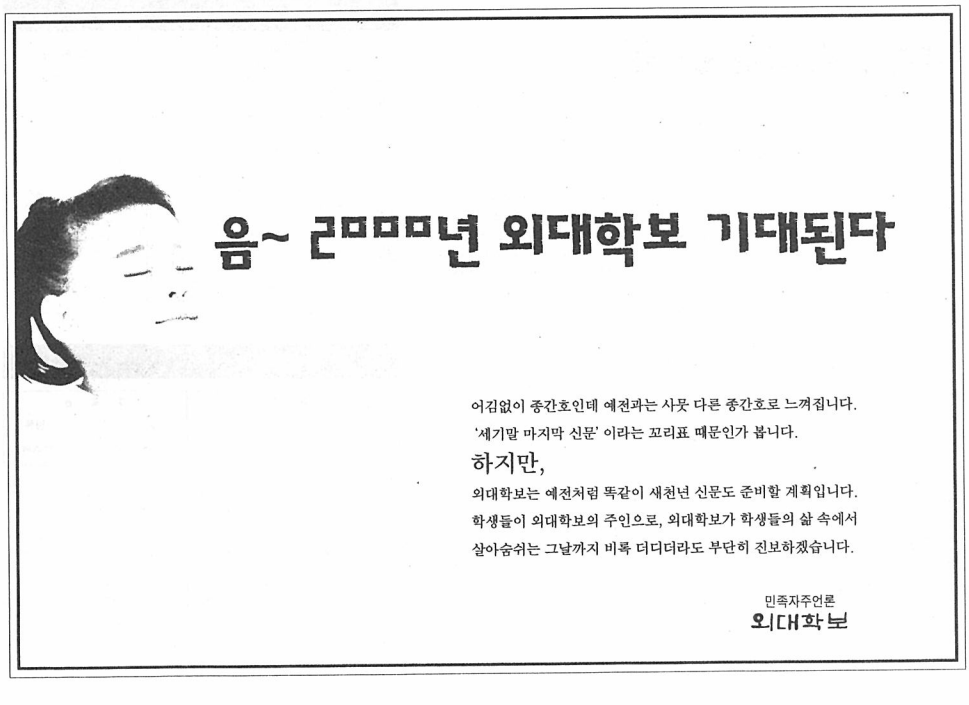
등록금 동결을 위한 비상확대운영위원회

등록금 동결을 위한 비상확대운영위원회 및 외대일꾼결의대회가 지난 3일(금) 사회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가 공식으로 남게 됨에 따라 신입 단과대학생회장이 모여 만든 단과대학 학생회대표자 협의회(단대협)를 보고하고, 등록금 동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단대협 의장으로 선출된 동아리연합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3)군은 발언을 통해 "모든 학생회가 진행상황에 대한 구심이 되는 상황속에서 내년 3월까지 꾸려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대가 등록금 인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7일(화) 4시와 10일(금) 5시에 노천극장에서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구성원과 합의했다.

류재석 기자 solbakken@hanmail.net



빈자 문할 수 없는 인내

▲"막상 대학은 내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선풍기조차 없는 강의실에서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한겨울에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강의를 들어야 했다. 커리큘럼조차도 학교에서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학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새내기들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은 '인내'라는 두 글자에 묻혀 버릴 뿐이다.

현재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줄을 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발표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인지 의심이 된다.

▲얼마전 교육부가 장기 교육재정 확보계획을 짜면서 김대중대통령이 퇴임하는 2003년의 GNP대비 교육재정 확보율을 5%로 잡았다. 사실상 김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 확보는 물 건너간 셈이 됐다. 또 사립재단의 강력한 요구로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 관철된 이상 사립대학들은 최근 2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 등을 운운하며 등록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득하려 한다. "국가 경제난으로 재원이 부족해 일정분의 등록금을 인상 할 수밖에 없다"거나 "학부모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학교의 경우, 이미 2학기 때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다음 학기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작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인상액은, 높은 수치로 달리고 있는 다른 대학과도 견줄 만하다.

소위 일류 사립대에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우리 대학도 뒤질 수 없지'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정의 확충은 등록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전체 예산의 0.1%만을 차지하는 재단전입금을 확충하는 것과 IMF속에서도 126억원이나 쌓여있는 이월적립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열악한 교육 여건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일차적인 방안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현행의 국고보조금을 늘린다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선거기간 중 양배움터 총학생회 후보자들은 등록금 인상저지, 국가 교육재정 확충 및 '두뇌한국 21' 철회 투쟁 등에 대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양배움터 학생 대표자들은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대학당국과 협상 중에 있고 서울배움터 학생들 또한 '등록금 동결을 위한 모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반적으로 12월이면 대학당국은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2000년 특별전형 합격자도 발표된 상황에서 신입생들에게는 곧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한 등록금인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낼 것인가? 그 반대가 될 것인가?에는 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들의 주동적인 움직임만이 힘이 될 것이다.

우혜나 mimo329@hanmail.net

서 울

전동대회 열려 분과별 예산안 의결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지난 3일(금) 사회과학관에서 동아리 대표자 50명 가량의 참여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임시 전동대회에서 연기됐던 분과별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해 행사때 부족한 액수를 동연자체교비에서 지급하는 예비비와 분과행사 지원 특별예산이 신설됐다.

또, 신규동아리 인준을 통해 복싱부, 고전어연구반이 동아리연합회에 가등록돼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됐다.

이 외에도 학지부, 홍노선령가와 당선사례도 진행됐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이상대(서양·영어 3)군은 "이제껏 지난해 예산에 대비해 지급되던 예산결정방식에서 벗어나 동아리들이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길에 더욱 다가섰다"며 이 날 회의 성과를 밝혔다.

모든 건물 금지구역으로 지정

이번 주부터 흡연구역을 제외한 우리학교 모든 건물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36호)을 개정해 1일(수) 부터 초, 중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사에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대학당국은 각 건물의 화장실 일부와 복도 양쪽 창기만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총무과 행정주임 안상덕씨는 "상효성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법이 개정됐으니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반아어과 등록금 공청회 열어

서반아어과 학생회는 지난 2일(목) 인문과학관 301호에서 등록금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서반아어과 학생회장이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 BK21, 교육법 개악' 등에 대해 발표한 후 선배들의 추가설명, 참가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반아어과 학생회장 정성욱(3)군은 "등록금 인상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했지만 학생들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앞으로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덕교수 번역 '장미, 나의 쪽배' 출간

이승덕 포어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의 리임 오렌지나무' 작가인 바스콘셀로스의 '장미, 나의 쪽배'를 번역 출간했다.

번역된 책은 작가의 최초 성공작으로 '제 오로포'라는 평범한 인간과 그의 쪽배 '로장나'라는 사물을 통해서 초현실적이고 심리주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생활에서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인식과 감동을 전해준다.

값은 8,000원이다.

겨울방학 학생식당 (매점) 연장운영

겨울방학동안 학생식당과 학생식당 매점의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예년의 경우 점심시간만 운영되던 학생식당은 11시 30부터 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5시부터 6시 반까지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또, 매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 영업하나 분식코너는 개점하지 않는다.

최창성 교수 태국공주로부터 명예문학박사학위 받아

최창성 교수(태국어)는 7일(화) 태국 국립 부라파대학교에서 한-태 양국간의 학술 및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씨린턴 공주로 부터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최교수는 최초의 6인단어 규모의 태-한사전 발간을 비롯 태국어 관련 서적과 학술논문 발표와 태국의 국립대학들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성사시키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내년 수강신청 2월 8일~18일

내년 수강신청기간은 2000년 2월 8일(화)일부터 시작돼 18일(금)까지 배움터와 학년별로 실시된다.

이번 수강신청은 1학기 수강신청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인터넷 수강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배움터는 8,9,10(목)일, 서울배움터는 11,14,15(화)일에 실시되는 이번 수강 신청은 한번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해 과부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해 진행된다.

또, 수강신청시 인원제한을 두었던 1학기 수강신청과 달리 실용외국어와 소수 인기과목을 제외하고는 인원제한을 폐지한다.

한편, 대학당국은 내년도 수강신청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겨울방학기간 동안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부하 여부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할 계획이며, 시행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교무과 수업주임 조수봉씨는 "학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꼭 수강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열린 음악회

마스터 피스의 9번째 작은 음악회가 용인 배움터 학생회관앞에서 열렸다. 플룻, 피아노, 바이올린, 섹스폰 등으로 연주된 이번 공연은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이에 공연을 관람한 정현옥(인문·사학 3)양은 "오후면 텅 비어있던 학교가 작은 공연으로 활기를 띠고 있어 기쁘다. 그리고 아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신선하다"고 말했다.

배윤희 기자 shortfilm@hanmail.net

용 인

루마니아어과 종강총회 개최

루마니아어과 학생회는 지난 2일(목) 교양관 203호에서 종강총회를 개최했다.

한해 과학생회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총회는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현 과학생회장 인사 △14대 과학생회장 선거 개표 △신임 과학생회장 및 집행부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과학생회장 정태경(2)군은 "학번이 어린 과학생회장을 믿고 따라준 과학생들에게 고맙다"며 "2000년 과학생회도 과학생들의 관심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고시 및 공인회계사 18명 합격

고등고시 및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에 우리학교 학생18명이 합격했다.

41회 사법시험에 11명, 43회 행정고등고시에 1명, 33회 외무고등고시에 3명, 34회 공인회계사에 3명이 합격했다. 이로서 우리학교는 대학별 종합순위에서 7위를 하였다.

각 과 선거 막바지

일부 과들 후보등록 못해

과학생회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부분의 과가 이미 선거를 맞췄으며 새로 당선된 과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들은 아직 후보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루마니아

사람 향기 나는 과학생회 건설과 학회의 발전, 세민전의 체계적인 준비를 공약으로 내건 김민석(3)군이 14대 루마니아어과 과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2일(목) 개표결과 김군은 재적인원 135명중 71명이 투표, 찬성 66표, 반대 5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과학생회장에 조성민(3)군이 당선됐다.

조군은 지난 2일(목) 개표결과 재적인원 150명중 94명이 투표해 76명의 찬성표와 17명의 반대표, 1명의 무효표를 얻어 당선됐다.

태국어과

18대 태국어과 과학생회장에 이제혁(2)군이 당선됐다.

전국 태국어과 학술제의 부활추진과 회계부 신설, 학회의 활성화, 건의함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군은 139명의 재적인원중 105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85명의 찬성과 17명의 반대 5명의 무효표로 당선됐다.

중국어과

19대 중국어과 과학생회장에 김노현(2)군이 당선됐다.

김군은 공약으로 왕산체전의 전체우승과 세민전의 성공적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국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

지난달 6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19회 전국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우리학교 학생 5명이 입상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배주현(서양·영어 2)
우수상-이지혜(서양·불어 3), 백혜리(서양·불어교육 3), 곽경환(서양·서반아어 3), 백지영(동양·중국어 4)

계절학기 개설을 위한 설문지 조사

용인배움터 교무처는 계절학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계절학기 수업을 서울배움터에서만 실시하는 관계로 생긴 용인배움터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하계 계절학기부터 용인배움터에도 계절학기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문항으로는 용인배움터에서 계절학기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찬·반과 개설 희망 교과목, 시간, 수강 장소 등이다.

이와 관련 교무주임 김형래씨는 "이는 용인 배움터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학생들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방학전까지 각 단과대학 교무과에서 실시한다.

각 학생회장 선거 상황Ⅱ

과	당선자	과	당선자
영어	정:박문수(2) 부:정해준(2) 선거일 8월	이탈어	김진성(3)
		터어키어	미정
독일어	추정훈(2)	마인어	미정
불어	미정	베트남어	강길수(2)
서반아어	정:정성욱(3) 부:김기홍(1)	태국어	미정
이태리어	한상진(2) 입후보 황태중(2) 입후보 선거일 8일(수)	신문방송	이보형(2)
		행정	김동현(2)입후보 선거일 8일(수)
노어	정:이재설(2) 부:허재웅(2)	정치외교	신정환(2)
네덜란드어	신봉영(2)	경영	미정
포르투갈어	임연신(2)입후보 선거일 9일(목)	경제	미정
		무역	미정
스칸디나비아어	미정	영어교육	미정
중국어	이영석(2)	한국어교육	김경희(2)
일본어	장기림(2)	불어교육	장숙연(2)
인도어	이지훈(2)	독일어교육	최봉성(2)입후보 선거일 8일(수)
이란어	임광섭(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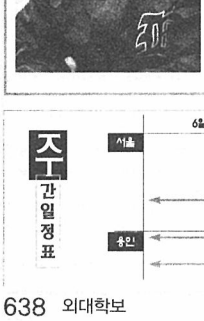
각 학생회장 선거 상황Ⅱ

과	당선자	과	당선자
영어	미정	인도어	박준형(3)
불어	신상욱(3)	태국어	이제혁(2)
독일어	미정	경영정보	조성민(3)
이태리어	미정	무역	미정
포르투갈어	미정	경제	박한균(2)
체코	미정	전자공학	김상규(2)
루마니아어	김민석(3)	제어계측	구교민(3)
노어	최원보(3)	정보통신	박정진(2)
헝가리	정:이기원(3) 부:전기홍(2)	컴퓨터공학	서한석(2)
		물리	민경국(3)
인어	미정	수학	미정
시학	미정	화학	미정
철학	미정	환경	미정
중국어	김노현(2)	생명공학	미정
일본어	김동희(2)	정보통계	미정
아프리카어	박들(1)		
마인어	김대연(2)		

이 사람

"야구를 알리고,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월드시리즈 야구대회를 준비한 야구부 주장 백승원(상경·경제 2)군을 만나



"공과 선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과는 달리 야구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여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올해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야구대회를 개최한 야구부 주장 백승원(상경·경제 2)군은 야구부원들이 올해 전국대학 야마추어리그가 끝나자마자 열의만으로 회칙, 룰, 장비, 스폰서, 등을 급하게 준비하여 월드시리즈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지난 11월 19일(금)부터 2주간 풀리그로 진행된 월드시리즈는 "원래 과 대항으로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동아리, 동문회, 소모임도 인정하여 총 19팀이 참가, 시범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꼭 과대항야구대회로 자리잡겠다"고 전한다. 이번대회에는 중국어과 백앞스, 독일어과 나찌스 등 재미있는 이름을 걸고 나온 팀들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어떤 투수는 핸드볼부원이었는데 야구공을 핸드볼에서 슛 쏘는 폼으로 투구하여 주위에 사람들과 한바탕 웃기도 했다"라며 리그기간 내 에피소드를 전했다.

그러나, 이번 월드시리즈가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상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한다. 백군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야구경기 종목 중 딱딱한 공으로 하는 하드볼을 인정하지 않는다. 운동장 주위에 주차된 차와 유리창,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문제 때문인데 그 해결방식이 그물망 확충 등의 지원이 아니라, 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서 재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며, "야구의 위험요소, 안전에 대한 것들은 학교측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학 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 중 파울볼로 대학원건물 유리창이 깨져 방음효과를 지닌 유리창을 30만원에 물어주기도 했다"며 "밑지는 장사"라며 웃으며 전했다. 또 기자재, 야구장비를 빌려주지 않아 자체장비로 하여 총 40게임을 치룬 지금, 장비가 많이 훼손됐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전하는 백군은 "일본어과의 경우 야구 소모임이 생기는 등 야구를 알리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학교때까지 야구선수였던 그는 어릴적 못이룬 꿈을 대학에 와서 아마추어로 야구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 백군. 마지막으로 내년 월드시리즈의 계획을 묻자, "사실 11월은 야구하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이다. 이번 월드시리즈를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하여 5월이나 코리아시즌이 하기전에 과대항 월드시리즈로 정식 출범하고 싶다"며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주간일정표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서울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노천극장 4시	선거 이태리어과, 행정과, 영어과, 독일어교육과	선거 포르투갈어과, 영어과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노천극장 5시	
	민중대회					
	성적 장학금, 고시 장학금 신청/ 각 학과장실					
용인	기록문학회 전시회/ 학생회관 전시실				민중대회	
	성적 장학금 고시 장학금 신청/ 각 학과장실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저녁	대학원생 백반	대학원생 일품요리
월(6일)	오징어볶음백반 (₩1,000)	콩나물국밥 (₩1,400)	광보채 (₩1,400)	두부새우찻국 (₩2,300)	냉이된장찌개 (₩2,500)
화(7일)	쇠고기국밥 (₩1,500)	불고기김밥 (₩1,500)	오므라이스 (₩1,500)	건새우아욱국 (₩2,300)	꽃게탕 (₩3,200)
수(8일)	버섯김치찌개 (₩1,400)	오징어축회비빔밥 (₩1,300)	소고기모듬야채볶밥 (₩1,500)	곰국 (₩2,300)	볶음밥 (₩2,500)
목(9일)	생선조림백반 (₩1,000)	육개장 (₩1,500)	두부된장찌개 (₩1,300)	조개배추국 (₩2,300)	비프커틀렛 (₩3,200)
금(10일)	북어국밥 (₩1,500)	사골우거지국밥 (₩1,400)	설렁탕 (₩1,500)	소고기무우국 (₩2,300)	떡만두국 (₩2,5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중식1	어문관 중식2	어문관 석식	후복관 조·중식	후복관 석식	후복관 탕류
월(6일)	마파덮밥 (₩1,400)	사골우거지탕 (₩1,800)	회덮밥우정찌개 (₩1,400)	쇠고기국 (₩1,400)	두부배추국 (₩1,400)	쇠고기육개장 (₩1,800)
화(7일)	참치김치찌개 (₩1,400)	불고기정식 (₩1,800)	고등어구이백반 (₩1,400)	콩나물해장국 (₩1,400)	순두부찌개 (₩1,400)	감자수제비탕 (₩1,800)
수(8일)	오징어축회비빔밥 (₩1,400)	갈비탕 (₩1,800)	순두부찌개 (₩1,400)	뭐운된장국 (₩1,400)	감자나시마국 (₩1,400)	설렁탕 (₩1,800)
목(9일)	소고기해물라면 (₩1,400)	육개장 (₩1,800)	부대찌개 (₩1,400)	시래기국 (₩1,400)	김치아욱국 (₩1,400)	참치탕 (₩1,800)
금(10일)	오징어볶음밥 (₩1,400)	차돌박이 (₩1,800)	한국잡찌개 (₩1,400)	미역국 (₩1,400)	북어콩나물국 (₩1,400)	갈비탕 (₩1,800)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방식 진단

4대째 교수가 이사장

이사회 규정 위배될 뿐 아니라 실무처리에도 차질 빚어

최근 들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생활협동조합(생협) 이사회 '이사장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협이 안정화를 꾀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에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그 출발인 것이다.

이사장 선출은 교수, 직원, 학생 각각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이사들의 동의를 구한 후 대의원총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사장 논의 자체가 대학당국과의 협상에서 직원이나 학생보다 교수가 앞임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에서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교수가 이사장직을 역임해 왔다.

용인배움터 생협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처음 자리를 잡았고 대학내 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수, 직원의 역할도 필요함을 인지하고 그 후 교수, 직원을 포함한 '3자 생협'이라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다.

교수만이 이사장직을 맡는 것은 이러한 '3자 생협'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생협 사무국 정진성씨는 "이사장은 교수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을 대표한다는 측면보다 대학생협과 학교측과의 연계나 대외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협 이사회 규정상 생협 조합원이면 이사장을 할 수 있으며 교수 뿐 아니라 학생이나 직원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렇듯 교수가 역임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 이외에도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실무 처리과정에서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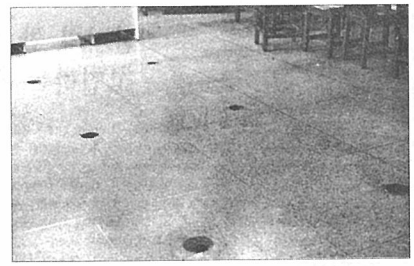
생협에서 실무처리는 최종 이사장의 결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교수가 이사장직을 겸임하다보니 생협에 종사하는 날은 일주일에 2번 정도타고 한다.

때문에 비품하나 구입하는데도 시일이 걸리는 것은 예사다. 이에 따라 사무국 직원사이에서는 상시적으로 상근하는 직원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5대 생협 학생위원회 위원장 신용선(동국·형가리어 2)군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인준을 받는 등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책임감 결여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협 학생위원회에서는 이사장 선출을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학생 조합원 박호정(서학·포르투갈어 3)양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사장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고 생협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밝히며 "이사장 선출을 투표로 한다면 이사장의 중요성을 알리는 측면과 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 속에서 6대 생협 학생위원회 위원장 당선자 김경민(정보통신공·컴퓨터공학 2)군은 "12월 중순에 열릴 정기 이사회 때 '이사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혜나 기자



구멍난 강의실 용인배움터 어문관 강의실 바닥에 주먹만한 구멍이 여러개 나있다. 이 구멍은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다른 쓰레기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심지어 수업중 교수님이 구멍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배윤희 기자 shortfilm@hamail.net

양배움터 선거시행세칙비교

양배움터 세칙 상호보안 필요

명확한 용어규정등 개선해야

선거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계기가 있다. 현재 서울배움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시행 세칙은 96년에 개선된 직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올해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연장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세칙에는 선거기간에 대해 '이틀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만 표기해 올해와 같이 투표율 미달로 연장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측의 실수로 선거가 무효로 선언된 경우 나머지 후보에게 피선거권 부여 할 수 있는 여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선거시행세칙을 보면 선거가 무효처리된 경우 해당 후보는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송주형(군·신방 2)은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 선거시행세칙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 이외에도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서울배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시뢰시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김현식 후보는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이었지만 후보등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의사를 밝혔었다.

또 용인과 달리 부재자 투표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용인배움터는 정책자료집이 50페이지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서울의 80페이지와 비교할 때 이정도 분량으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는 현재 시행되는 선거시행세칙에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 선거시행세칙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배움터에서 문항이 없어 선관위와 선거운등본부 합의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연장투표의 경우 용인배움터 선거시행세칙에는 1회, 하루에 한해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선거시행세칙을 통해 명기한 것 이 한 예이다.

양배움터간 선거시행세칙 비교를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재석 기자 solbakken@hanmail.net

사설

대학언론의 역할

학내구성원 관심과 참여 뒷받침돼야

탈이념화, 탈정치화의 바람이 대학캠퍼스에도 분다고 한다. 총학 선거에서 운동권 계열의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된서리를 맞았고 서울 모대학에서는 교내 힘합 동아리를 창설한 멤버중의 하나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와 학우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고도 한다. 지난 학기 동안 우리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가끔은 듣기 민망한 어휘를 동원하여 학보를 호되게 질책하는 독자들의 글들 또한 캠퍼스에 부는 바람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독자들의 주된 지적은 지면이 정치적, 이념적 기사에 편중되었다는 것이었다.

학보를 비판하는 독자들은 학보가 정치와 이념에 함몰되어 있는 운동권 학생들의 논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 신문 본연의 기능인 대학 문화의 창출, 학내 여론의 원활한 소통, 학교 홍보 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다. 단적으로 말해 탈이념, 탈정치의 시대적 정신을 학보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치, 사회적 모순으로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여 진보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야할 젊은 대학인들의 탈정치화 경향은 매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우리에게는 아직 조국 통일이라는 한민족 최대의 과업이 남아 있으며, 이 나라를 좀먹어 들어가는 부정부패의 뿌리가 아직 잔존해 있고, 망국의 지역 감정과 이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학인들의 탈정치화 경향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군부 독재가 극복되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하여 우리의 시야를 캠퍼스 내로 제한시킨다면 앞을했던 지난 세기의 역사가 새천년에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대학인의 역사적 책임 의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신문의 본연적인 기능을 학보가 외면해서도 안된다. 대학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문제점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개선의 계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대학의 발전심이나 학내구성원들의 활동들도 정심스럽게 챙겨 알려야 할 것이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 문화의 주도적인 참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견 상호 대립적인 것 같은 상기한 대학 신문의 역할들을 상보적인 관계로 승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외대 학보가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 같다. 정치와 이념 일변도의 협소한 문제의식을 극복하여 대학언론의 지평을 넓히는 역량을 확보해가는 것이야말로 학보가 독자에게 다가가고 독자가 학보를 애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전문성과 계획성도 학보에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학기 동안 학보 발행이 지연되기 일쑤였다. 원고마감의 연장, 기사 작성의 지체, 조판과정의 지연, 학보 발행일 연기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소수의 학생기자들이 일주일 내내 제작에 매달려야 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게 느껴진다. 환경 개선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배려가 시급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된 비판일 것이다. 참여 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전 구성원들의 참여속에서만이 외대 학보는 신바람이 일구어 놓은 전통 속에서 새천년의 지평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이다.

치 재나수

소외된 학생들

최근에 대학측은 조건없이 평일에 학생들에게 대여해주던 교수회관 소강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용제한 결정에 대해 동아리 담당 육진호씨는 "음악공연 같은 경우 지하매장의 영업이나 교수들의 연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여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학생회관 소강당은 학생들의 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제한 결정이 내려져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약이 따르게 됐다.

게다가 소강당 사용제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행사계획서를 담당자가 이를 근거로 판단해 정확성 여부가 모호하다.

또, 정작 피해를 입고 있다는 교수회관 지하매장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과 다르다.

문방구 주인 장재영씨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한 점은 없다. 오히려 주말에 예식행사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 불편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때 지하매장 바로 윗층 교수식당에서는 모대학원의 동문인의 밤 행사가 진행중이었다. 두대의 커다란 엠프로 음악 퍼지는 밴드의 연주, 행사장을 오가는 사람들로 교수회관이 시끌벅적했다. 마침 같은 층 복도 끝에는 기업법연구회의 세미나가 함께 열리고 있어서 이와는 대비된 모습이었다.

소란스럽다는 이유가 대여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던 말은 무엇인지, 피해를 입고 있다던 교수연구동의 교수들도 이 '기준'에 과연 동의할까 의문스러웠다. 박수용 기자

서울

사회대 학생회장 황인표(정치외교 3)군

"단대 학생회를 통해 과 학생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죠"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단대 상을 밝힌 황군은 그에 걸맞는 공약들을 선거에서 내걸었다.

△각 과방 조명시설 개선 △각과 학생회실 컴퓨터 설치 △학생 행사비 지원 및 복사비 지원 이 중 학회에 복사비를 지원 하는 공약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황군은 밝힌다.

또, 이의 실행을 위해 단대 예산의 50%를 과 학생회, 소모임, 학회들의 지원비로 책정하겠다고 밝히며 "수치상으로는 꼭 맞지 않아도 심짐적으로 필요한 활동비는 꼭 보장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용인

경상대 학생회장 나주철(경영정보 3)군

17대 경상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나주철(경영정보 3)군은

나군은 "대학생이라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교육투쟁 등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나군. 나군은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나군은 또 "학부제의 실시로 학생들의 소속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대 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커가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양어대 학생회장 이윤재(이태리어 3)군

가장 학생이 많은 단위인 서양어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군을 만나러 가니 벌써 등록금 인상저지 서명운동 준비로 바쁜 모습이었다.

이군은 올해 학생회가 서양어대 학우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는 부족했다며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의 공통지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소모임 연석회의 조직, 운영위원회 위상 강화, 가마솥 문화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또, "서양어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 건물의 강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며 컴퓨터 상황판, 화이트 보드 설치, 복사기 신설, 수업시간표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군은 총학생회와 연계해 학교당국과 논의를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인문대 학생회장 최현재(철학 3) 군

"올해는 단대 학생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대 학생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라는 13대 인문대 학생회장 당선자 최현재(철학 3)군.

인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소속감 부족과 문화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내년 단대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최군은 학생들이 인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취직 문제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라며 인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음악 감상실과 영화 감상실 등의 문화 공간 설치와 생활도서관의 위치를 재배치해 많은 학생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대 학생들도 학생회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문대 학생회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잇는다.

동양어대 학생회장 오원근(베트남어 3)군

동양어대 정책자료집을 보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다. 오원근군은 이 말의 뜻을 대안 없는 비전이 아닌 진정한 창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학생활동이 단순히 비리세력에 맞서 싸우기만 하는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나간다는 뜻이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라 오군은 내년에 특별한 사업보다는 기존의 행사라도 함께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방학동안 단대 학생회를 강화시키고 싶다는 오군은 "단대가 과학생회와 총학생회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내년 각오에 대해서도 "학내의 일을 진행할 때 학생의 삶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양학대 학생회장 김태규(영어 3)군

"말했던 것만큼은 꼭 지키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일(금)까지 연장선거를 진행한 가운데 투표율 41.3%를 기록하며 마감한 서양학대 학생회장선거. 서양학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태규(영어 3)군이 당선 직후 밝힌 말이다.

당선자가 아닌 정식 학생회장이 되는 날은 13일(월)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군은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재의 학생회와 연계를 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서양학대 6개과는 서울배움터와 중복하되는 과임니다. 그러나 서울배움터와는 달리 전임교수가 극히 적죠"라며 "용인배움터의 발전과 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임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전한다.

김군은 "아주 가볍게 들르고 쉽게 다가설수 있는 학생회가 이상적인 학생회의 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경대 학생회장 민부기(경제 2)군

계열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단결하면 살대였다'는 말을 선배들로부터 자주 들어왔다는 민군.

"계열제 실시 이후 과방에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선후배 관계도 서먹해졌다"는 민군의 말속에는 예전의 상대를 복원하기 위해 계열제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해답이 함께 있었다. 민군은 계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몇개의 반으로 나뉘어 운영될 것입니다. 반별로 단합을 유도하고 선배들과 만나는 자리도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당선소감에서 "지금도 자신있다"며 당당히 포부를 밝혔던 민군의 의지에서 내년 상대의 모습은 선배들이 얘기한 과거의 모습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들었다.

자연대 학생회장 유영준(물리 2)군

자연대 학생들은 단대장 중 가장 어리다지만 듬직해 보인다는 말을 한다. 바로 최연소 단대장인, 자연대 학생회장 유영준(물리 2)군을 두고 하는 말이다.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불안감이 바로 책임감으로 변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유군은 "후보자 때는 실감하지 못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 학생회에 대한 질책은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이죠"라며 "사업을 하더라도 단대 학생회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결정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자연대는 대부분의 수업이 공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용인공동화 현상처럼 자연대 공동화현상이 어느새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유군은 "자연대 1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측에 당장은 강의실 개설을, 나아가서는 자연대 증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범대 학생회장 박찬규(영어교육 3)군

군대까지 다녀와서 학생회장직을 맡는 것에 많은 생각을 했다는 박찬규군은 각 과는 학회연합들을 강화시키겠다고 한다.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했음에도 서울과 용인을 합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박군은 "사범대가 각 과별로 개성이 강하지만 가장 잘 단합되는 곳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군은 또, 지난 학생회보다 사회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싶다며 "학내적인 문제와 사회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항상 학생들과 함께 학내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희망을 넘어 현실로, 진보의 힘찬 발걸음'을 선거기간동안 핵심 기조로 내세웠던 박군은 겨울방학때 교양학교 등 행사를 통해 단대 학생회를 제대로 만든 후 내년 사업을 제대로 펼쳐보고 싶다며 희망을 나타냈다.

생활협동조합장 김경민(공대 · 컴공 2)군

'자판기 투쟁, 양심우산, 카트리지 재활용…' 용인배움터에서 생활문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생활협동조합(생협) 내년 사업을 이어갈 사람은 생협 학생위원회 위원장 당선자 김경민(정보통신공·컴퓨터광학 2)군이다.

김군은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경험도 없고 생협에서도 조합원일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당선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 김군의 주요공약은 '조합원에 대한 혜택 확대'다. 이에 대해 김군은 "생협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작은 혜택이라도 문화답사를 진행해 조합원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조합원들간에 공동체적 문화를 느낄수 있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법대 학생회장 서정환(법 3)

구수한 그의 말투에 고향이 서울이 아닌것 같다는 기자의 물음에 "서울 생활 헛 했다"며 웃는 서군.

서군이 이번 선거에서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적 학생회는 지난 학생회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지난 날 학생회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고 법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집행됐다"며 "민주적 절차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서군은 "선,후배 사이의 친목도모의 장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지원책 등에도 관심을 쓰겠다"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절차라고 덧붙였다.

"민주적인 것은 학생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며 충실히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황군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동아리연합회장 박영찬(중국어 2)군

지난 24일(수)과 25일(목)에 치뤄진 선거에서 132표를 획득해 18대 동아리연합회장(동연장)에 당선된 박영찬(동학·중국어 2)군은 "동아리 당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란 기조아래 동아리를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자신감있게 말했다.

현재 박군은 각 동아리의 홈페이지 제작 및 동아리연합회의 서버를 제작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들의 것입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라며 학생들의 비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학내 복지를 중심으로 18대 동연을 이끌겠다는 박군은 △학생회관내 화장실 보수공사 △동아리방의 방송망 설치 △동연실을 개조한 휴식공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동아리연합회장 이승주(사회 · 정치외교 3)군

'세상에 맞서는 사람과 관성에 맞서는 상상력으로, 삶으로부터의 르/네/상/스'를 선거 기조로 했던 이승주 군은 문화의 흐름은 '문화의 생산, 발산, 대중과의 공유'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끊이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군은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도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내년 동아리연합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새내기 한마음, 대동제, 방학중 생활문화운동센터, 동아리 페스티벌의 4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내년에 현재 대학문화원실에서 대안적인 공간으로 대학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하는 이군이 동아리연합회에 르네상스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알림

총아학생회장 당선자 석소현(동학·아프리카어 2)양 인터뷰는 본보사정으로 실지 못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외대학보

정정

지난 750호 3면 고발사진 내용중 게시판 관리부분에서 생협이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을 '게시판 관리와 무관해다'로 정정합니다

외대학보

외대학보를 읽고

기사와 관련된 정보 자세히 공개하길…

지난주에 학술보도면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소개와 사이버 토론회의 내용이 실렸다. 그 기사를 읽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비축소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사이트 주소까지 소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우식〈동학·마인어 4〉

서울배움터 총학선거와 관련 민첩한 언론인의 자세

무효처리된 서울배움터 총학 선거가 이번주 학보에는 당선기사로 실린채 나왔다.

배포 장소마다 무효사실을 알리는 광고문을 붙여 놨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신문을 읽었다.

호외로 바른 소식을 알리는 것이 민첩한 언론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옥진호〈학생처등아리 담당〉

동아리내 분실사건, 함께 고민하였으면

요즘 동아리내에 분실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회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우들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번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앞으로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보호할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기사도 학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박유진〈동구·헝가리 1〉

사회 소식 비중 늘려 주었으면

학보에는 동아리 공연이나 각과 행사들이 많이 보도된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회소식은 비중이 적은것 같다.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많이 알려 줄 수 있는 학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송정민〈상경·경영 2〉

학회 지원금 늘려야

우리학교에는 원어연극을 할때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지원금은 같은 언어계통의 과가 함께 연극을 할 때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캠퍼스의 영어과와 영어교육과, 용인캠퍼스의 영어과가 함께 원어연극을 할때에만 지원금이 나간다. 각과별 특성이 있는데 실제로 같이 함께 원어연극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따로 하면서도 같이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3개과가 나눠 갖기 때문에 실제로 한 과가 갖게 되는 액수는 적은 편이다. 심지어는 원어연극을 하지 않는 과가 있을 경우에도 원어연극을 하는 다른 과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다른 과와 같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두번째 문제는 이 지원금이 격년제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어연극을 하는 과는 매년마다 연극을 치루는데 지원금은 2년에 한번만 나온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원어연극을 치루는 비용해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해는 어려움을 갖게 되고 해마다 재정구조가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언어계통의 과들은 지원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반해 같은 언어계통의 과가 없는 과들(외대내에 유일한 언어를 배우는 과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어과나 터키어과, 동구어과들)은 그 지원금을 한 과가 모두 가지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원어연극에 한해서만 지원된다고 한다.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그러한 활동이 원어연극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문계열의 과들은 원어연극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과들은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나 법대 같은 경우는 학술제나 각종 예술제를 치루지 않는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없다고 한다. 학교측에서 보기에는 전공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사만이 지원금을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어교육과에서 한국어로 하는 연극이 원어연극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액수도 적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원어연극 지원금은 학교홍보에 도움이 되는 행사만을 지원하는 매우 형식적인 겉치레임이 분명하다. 진정 학생자치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강석천〈사범·독일어교육 3〉

"거듭나는 응원단이 되겠다"

얼마전, 용인배움터에서 하내 대자보에서 공고된 HUFS응원단 모집에 관해서 응원단 단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하내 대자보에 게시된 HUFS응원단은 기존응원단(O.T.,청맥제때의 응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응원단은 2학기 초에 단장(현HUFS창립자)과 응원단원들간의 불화로서 현재 나뉘게 되었다. 단장은 처음부터 단원들에게 감정적으로 치우친 지도력과 공금비리 등으로 신임을 얻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채 개인적으로 새로운 응원단을 창설했다.

혹시나 HUFS응원단 모집광고를 보시고 관심이 있었거나 앞으로 신청할 학생들은 착오가 없길 바란다.

지금 기존의 응원단(한국외국어대하교응원단)은 이렇다할 단장 없이 응원단원들끼리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며 지내고 있다.

미리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부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응원단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석형〈서학·서반이어 2〉

선거의 참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외대인 되길

이번 서울배움터 선거는 나에겐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홍보지를 통해 선거와 후보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얘기도 듣고 유세도 보며 지내니, 아마도 우리학교 사람이라면 선거를 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표일 다음날,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투표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두가지 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 학생회다. 그리고 그 학생회의 간부를 뽑는 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또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자 이미 투표를 한 후배에게 다른 이름으로 한번 더 투표를 하게 한 것이다. 결국 그 후배는 투표용지에 '부정선거'라고 쓰고 나왔다. 기성사회의 정치판에서 보아왔던 부정선거가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학생이자 지성인이기 때문이다.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정의를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좀 더 바른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로 이어진다면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비록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가 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기본자세임을 감조하고 싶다. 선거의 참의미를 알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를 대학생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우리 외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현준〈서양·영어 1〉

배움터내 환경개선에 학생·학교 모두 힘써야

'환경과 사회' 5.6교시 수업을 듣는 용인배움터 학생들이다. 이번에 우리팀은 이상적인 화장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개의 조로 나누어 용인배움터 각 건물의 잘되고 있는점과 잘 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 알아오기로 했다. 그 결과 각 건물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된 문제점은 화장실에 관한 것이었다.

용인배움터 화장실은 우선 기본적인 문고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문고리가 없음으로 인해 화장실을 사용할때 섭혹 들어가려다도 친구에게 문을 잡아달라고 부탁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

또, 화장실마다 물비누 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물비누가 담길 경우를 본 적은 드물다. 화장지 역시 준비되어 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들의 잘못도 크다. 그러나 학교측도 화장지를 비롯한 물품관리에 소홀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수도꼭지의 고장으로 인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또한 이것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잘못인데 세면대의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려 하수구 구멍이 막혀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학생회관 화장실 세면대 설겆이를 한 뒤 뒷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냄새 또한 좋지 못하다.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학교측의 문제점만 여러개 나열했는데 직접 사용하는 우리들의 문제도 크다. 앞서 지적했듯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결국은 화장지는 우리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다)손에 몇번씩 말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꽁초나 재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래침을 바닥 아무데나 뱉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학교 화장실에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우리팀이 논의한 결과 이상적인 우리학교 화장실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화장실'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팀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미흡하지만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 우리팀은 각 건물의 모든 화장실을 조사해 문고리, 수도꼭지가 고장난 곳을 조사하고 필요한 물품을 적어 총무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실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자보 작업, 인터넷 이용 등 작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학생들도 우리학교 화장실에 많은 불만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씩 자기자신을 바꿔가면서 학교측에 요구를 하면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처와 같은 화장실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환경과 사회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명강 금세기 마지막 학기를 마치며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캘린더를 들여다보니 이제 199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그러나 그 보다 마음속에 더욱 와 닿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세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프랑스 AFP통신에서는 20세기 12대 발명 및 발견으로 텔레비전, 비행기, 컴퓨터, 레이저 등 12가지를 선정했다. 돌이켜보면 실로 위대한 탄생의 20세기였다. 이제 새 천년을 앞두고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 '문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천년은 지식·정보·문화라는 무형자산이 한 개인은 물론 한 나라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또한 이미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천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학기에 '오세아니아 사회와 문화'라는 교양과목 강좌를 맡았다. 학기 중에 '호주 백호주의의 잔상'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과제물이 있었다. 한 학생의 리포트에는 '백호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읽어보면서 졸업 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었던 호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경하던 나라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이 나로서는 안타까웠지만 그보다 더 큰 뿌듯함은 배움과 탐구를 통해 그 학생이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아주 작지만 외대생 각자가 20세기에 탄생한 수많은 위대한 발명 및 발견처럼 개인적으로 소중한 발명 및 발견을 이루었으리라고 확신한다.

21세기는 분명 우리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고 많은 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기술과 지적인 능력은 물론 반짝이는 기지와 감성, 아이디어가 총 망라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안되면 되게 하라'식의 태도가 아닌 '될 수 있게끔 자기자신을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학기 중에 캠퍼스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한 학기 동안 배우고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펼쳐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건투를 빈다. 삶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배운 것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체득하고 보다 창조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나도 누구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야말로 새 천년의 진정한 '신지식인'이 아닌가 싶다. 끝으로 금세기 마지막 학기에도 최선을 다한 외대 전구성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신봉섭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연구원〉

호적파버려!!

-한국 가장 일동

그들이 언제 이민왔었던가... 종합토지세, 주민세, 재산세 받아야지

-관세청 공무원

호적에 피도 안마른 것이....

-트레이드 96

난 전입 신고 받은적 없어

-올림도 면직원

주제: 일본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는데...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호적관리자

대마도는 우리땅이다..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도 일본땅! 일본땅은 한국땅!

-땡주인

내게 거짓말을 지껄여대봐

-정쎈우 김독

생존권 사수
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철폐
농가부채 완전해결
노동시간 단축

99 2차 민중대회

혹시 우연이란 확률을 믿나요?

연봉제와 고용계약제의 미국식 인사제도로 인해 자살한 시티은행의 명동지점장.
추곡수매가 3%인상과 추곡 수매량 축소로 늘어만가는 농가부채,
WTO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 삶의 어려움.
터전을 철거당한 빈민들의 삶은 황폐화.
아버지의 실직과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침탈과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적 탄압으로
민중들의 삶이 파탄의 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면 주사위의 우연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2차 민중대회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10일(금)은 2차 민중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문의사항은 각 과나 단대 학생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고향 그리움

러시아인의 겨울나기

우리에게 주는 러시아인의 겨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얼음을 깨고 물 속에서 수영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 정도, 그리고 두툼한 코트에 털모자를 쓰고 비삐 걷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더 아기자기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의 겨울은 10월에 시작된다. 굳이 북부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모스크바만 하더라도 이때쯤 눈이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의 겨울은 4월 정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철저한 월동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처럼 김장같은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저장해서 먹을 만한 식품들을 준비하고, 의복과 실내를 점검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신체단련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데 이러한 단련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받는다. 추운 날에 어린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거리를 산책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러시아의 겨울광경이다.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연말행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연말연시를 떠들썩하게 보내는 일이다.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인데 사실 이 날은 구력(율리우스력)으로 볼 때 12월 25일이다. 러시아인들은 1918년까지 구력을 사용했고, 이 역법을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가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신력(그레고리력)과 13일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송년행사로 온통 축제분위기로 되는데 러시아인들은 특히 불꽃놀이를 좋아한다. 1월 14일은 구력으로 1월 1일에 해당되는데 옛날부터 새끼돼지를 잡아 먹는 관습이 있으며 한 해의 점을 치기도 한다. 도시의 시장에는 이 날을 위해 잡힌 새끼돼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후 러시아인들은 일상적인 일로 바쁜 생활을 하다가 2월 말쯤에 전통적인 겨울보내기 행사를 한다. 지금은 시골에서나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1주일이나 지속되는 떠들썩한 축제가 있었는데 이를 '마슬레니차'라고 부르며 서양의 사육제와 유사하다. 일종의 '북극곰 수영대회'라고 부를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이 시기에 행해지던 것으로서 지금도 볼 수 있다.

기나 긴 겨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즐기려는 러시아인들의 겨울나기 행사에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황 영 삼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토스타' 지에 실린 우리학교 박상돈(서양·영어 3)군의 500여년전 미군병사 찾기

조지프 월, 그는 노근리 참전병이었다

군복무 시절 비무장지대 철책 안에서 참호를 파다 한국전 참전 마크의 인식표를 찾아낸 우리학교 박상돈(서양·영어 3)군. 박군은 대학교의 미국인 은사의 도움과 영어권 주요 신문사에 글을 보내는 등의 수소문 끝에 인식표의 주인인 조지프 월씨가 현재 펜실베니아주 필아델피아에 살고 있으며, 노근리 학살 현장에 있었던 제1기갑사단 소속 포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캐나다의 권위지인 토론토 스타지에 실린 박군의 글을 번역하여 싣는다.

- 편집자 주

1950년 미군들이 한 철로 다리 밑에서 무고한 한국 양민들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 이야기는 최근 몇 주 동안 세계 신문 기사들의 큰 표제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매우 분노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은 특히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취급받았는지에 대해 할 이야기들이 있다. 그 학살에 대해, 미군들에 의해 들판에서 강간당한 한국 여성들에 대해. 그들은 우리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20대 중반의 젊은이이긴 하지만, 또한 할 이야기가 있다. 나의 이야기는 그 비참한 전쟁 중에 싸웠던 한 군인인 조지프 월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1997년 7월이었다. 한 해 중 한국에서 가장 더운 달. 나의 군복은 땀으로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당시 나는 한국에서 의무적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약 60만 명의 젊은이들 중 하나였다. 나의 소대는 남북을 갈라놓는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일무는 혹시 있었을지 모를 북한 간첩의 침투 흔적을 살피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한 7월과 8월 중에 올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철책을 따라 배수로를 파고 있었다. 나는 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내가 축축하고 거무스름한 흙을 30센티 정도 파 들어갔을 때 갑자기 삽이 금속성 물체를 건드렸다. 내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국전 당시 묻혀진 지뢰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왔었다. 몇몇 젊은 군인들은 군복무 중 이 오래된 지뢰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서 무릎을 꿇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금속성 물체에서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영원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것이 지뢰가 아닌 군인의 낡은 인식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흙을 좀더 긁어냈을 때, 알루미늄 조각에 찍혀진 숫자와 글들이 나타났다. Joseph Wall (조지프 월), RA 13335499.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자신의 조국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한국 전쟁 동안 싸웠던 이 외국 군인은.

나는 지금 24살이다. 나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나는 아직도 조지프 월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을까? 그는 60세에서 70세 사이일것이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고 아마 하얀 머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그가 아직 살아 있다면 한국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비무장 지대 근처 강원도에 위치한 설악산의 그 웅대한 봉우리들을 기억할까? 가을의 외투를 아름답게 입은 그 모습을? 그는 예메랄드 빛의 그 논들을 기억할까? 그 당시 그는 논에서 많은 벼들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국민들은 쌀이 부족해서 굶어 죽기도 했으니. 그는 봄이면 산과 들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개나리와 진달래를 기억할까? 아마 그는 시골 마을의 초가집들을 기억할 것이다.

가을이면 빨간 고추들이 마루에 널려있고 검붉은 수탉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초가 지붕위로 날아오르는 그 광경을. 이 모든 것이 오래 전 시골 생활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시인 정지용 (1903~ , 38선을 넘어 사망 연대 미확인)은 그것을 또한 기억한다. 여기 그의 사랑스러운 시의 일부가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러나 조지프 월은 단지 그 전쟁의 참상만을 기억할 수도 있다. 산산 조각난 몸둥이나 겨울을 나기 위해 갈대와 널빤지, 종이박스와 주석 통조림통 등으로 천막을 친 난민들. 시체가 돼버린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전쟁 고아들. 붕대를 감고 있는 군인들. 다리가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들을. 죽음의 냄새가 도처에 깔려 있었다. 아마 그는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이 연합군과 함께 상륙한 인천을 기억할 것이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관심이 없다. 내 세대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포츠, 배낭여행에 더 관심이 있다. 조지프 월의 인식표에 고취되어서 나는 한국 전쟁에 이끌렸다. 내 나이의 사람에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방문해서 전쟁 당시의 분위기와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느껴보려 했다. 나는 전쟁에 참가한 유엔군 중 5만 7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11만 명 정도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 5만 5천 구의 시신이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졌지만 아직도 2천 명 이상의 군인들은 실종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나는 한국전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은 조사해 봤다. 그러나 조지프 월의 이름은 그 어느 목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아마도, 그는 정말 아직 살아 있을 것이다.

조 월은 지금의 한국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 산업 대국으로 만들었고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했다. 세계는 1988년 한국에서의 올림픽 경기를 지켜봤고 우리는 이제 2002년 일본과 월드컵을 개최할 것이다. 조가 지금의 서울을 본다면, 화려한 자동차와 옛날의 절들을 상대로 서있는 높은 건물들, 그리고 핸드폰과 컴퓨터를 가진 멋진 젊은 실업가들이 있는 포스트 모던 풍의 도시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다. 1997년 IMF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는 한국 전쟁이 참전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점점 그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물론, 노근리 사건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생각은 조지프 월에게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항상 그렇다. 내가 그 인식표를 바꾸장 지대에서 집어든 순간, 그와 나는 시간과 공간, 국적과 나이, 전쟁과 평화를 뛰어넘어 하나로 연결되었다. 진흙 속에서 발견된 그 낡은 인식표가 한국 전쟁을 어떻게 나의 문제가 되게 했는지는 참 묘하다. 나는 그가 아직 살아 있다면 만나 보고 싶다. 나는 그 인식표를 돌려주고 싶다. 나는 그 노병사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

노근리 소식이 9월 말에 보도되기 전에는 조지프 월은 좋은 친구 같았다. 그를 찾으려는 노력은 단순히 한국 전쟁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혼란스럽다.

그의 앵글로 색슨식 이름은 그가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영국,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조지프 월이 그 당시 노근리에서 무고한 양민을 향해 총을 쏘았던 미군 중 한 명으로 확인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번역: 박상돈
(서양·영어 3)

THE TORONTO STAR November 14, 1999 METRO EDITION

Finding Joe Wall's dog tags at DMZ

Reports of 1950 massacre give new meaning to young Korean's search for an old soldiER

BOY IN WATERCOLOUR: A sketch of the author, pulled out of the rubble after his house was bombed. Korea was a forgotten war, he says.

FLEEING ABUSE: A young girl in a refugee camp in Korea. Many of the victims of the massacre were women who had been raped by soldiers.

FREE CITIZENSHIP: Mr. William H. Kenney, who fought in Korea, is now a Canadian citizen.

박상돈군의 글이 실린 '토론토스타' 지

국제단신

미국 세균전의 최초 희생자는 한국인

토론토 요크대학 교수인 스티븐 엔디코트와 에드워드 헤이거만은 '미국과 세균전: 냉전 초기와 한국의 비밀'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은 미국에 의해 세균 무기가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사용되었음을, 적어도 실험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을 지적하여 노근리 양민학살, 고엽제 살포로 이어지는 우리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고조될 듯하다. 비밀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된 기록에 의하면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지 2주후인 50년 10월 27일, 미 국방장관 조지 마셜이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 대규모 세균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방성 세균전위원회가 50년 후반 "데트릭 주둔본부의 특별전사단이 세균전 약품의 비밀 살포를 위한 수단과 기제를 고안하는 데서 보여준 창발성과 상상력, 대담성"을 칭찬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위의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 및 대부분의 중국역사가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 국가기록보관소와 그곳의 문서들이 미국이 52년 3월, 부대편성과 병참지원을 갖춘 세균전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최초의 국가라는 사실을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의 한국전 당시 세균무기 살포로 인해 수백명의 군사상자와 2천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사망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과 더불어 한국전쟁시 최초 세균무기 체제를 개발함으로써 콜레라, 이질, 보틀리누스 균등의 현대병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 책은 사담 후세인이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폭격을 가했던 미국의 실상을 밝혀냄으로써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이다.

WTO반대 한국시위대 시애틀에서 시가행진

지난 30일(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대하는 수만명의 시위대와 미국 시애틀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예정시간보다 5시 20분 정도 늦게 개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시위대 속에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33개 단체가 연대한 '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대표단 등 한국시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개회 선언 뒤 음추모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의 협상 경과 보고에 이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의 각료 연설이 진행됐으나 예정됐던 일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연설은 시위대의 봉쇄로 인해 수석대표가 참석하지 못해 연기됐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5만여명의 엔지오 시위대들은 밤늦게 까지 시애틀 도심에서 주요 교차로와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채 격렬한 시위를 계속해 각국간의 비공식 회담도 무더기 취소됐다. 이번 시위사태로 인해 세계 엔지오들의 무역자유화 등 신자유주의 반대움직임이 뉴라운드협상을 계기로 한 곳으로 모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스트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기도 폭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원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미국 마이애미에 본부를 둔 쿠바 망명자 그룹이 베네수에라 대통령인 우고차베스를 암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카스트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18일 마이애미의 한 모임에서 암살계획이 세워졌으며 이는 전미 쿠바인 재단의 지원을 받은 특공대에 의해 11월달 내에 실행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쿠바정보국이 작성한 문건에 나온 사실로 아직 차베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카스트로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폭력사용에는 반대해온 전미 쿠바인 재단의 대변인 니노스카 페레스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카스트로 의장이 폭로한 암살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차베스 대통령의 비판세력들은 새 헌법초안에 우고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검열이 난무하고 정부가 경제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일인독재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정정

지난 761호 클로키움의 필자는 '김정환 교수'에서 '김정하 교수'로 정정합니다.

외대학보

외대사랑 외대발전
ARS 700-0202

1954년 4월 20일…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숱한 악조건 속에서 설립된 한국외국대학교…
60년대는 조국 근대화의 일꾼을,
70년대는 자유민주주의의 배아를,
80년대는 국제화의 첨병을,
그리고 지금까지 전세계를 한데 묶는 분야별 전문가를 배출해 왔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제 새로운 천년을 향해 다시 웅비하려 합니다.

외적 화려함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메마른 가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정과 사랑으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하는

"새 천년 맞이 외대인의 밤"

일 시 : 1999 12 14(화) 오후 6시 30분
장 소 :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참가대상 : 동문, 교수, 직원, 재학생, 학부모, 독자가 등 외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행사목적 : 외대가족의 화합 도모
서울캠퍼스 본관과 용인캠퍼스 중앙도서관 건립기금 모금

행사내용 : - 식전행사
- 1부 공식행사 (기념식)
- 2부 만찬 및 축하공연

· 연락처) 외대발전캠페인본부
TEL 02-961-4402, 02-3295-570
FAX 02-3295-5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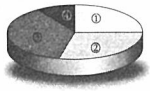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총동문회

95%학생, "학생회 필요하다"

외대 선거평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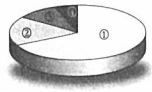
(설문지 배포: 서울 150, 용인 150매, 수거: 서울 120, 용인 120매)

1. 이번 학생회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과학생회선거에 투표했다 34.2%
② 단대학생회 선거에 투표했다 39.1%
③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했다 50%
④ 기타 12.5%

3. 투표하지 않은 분도 여건이 된다면 투표할 의향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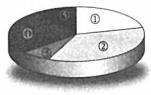


① 그렇다 25.8%
② 아니다 6.7%
③ 내가 속해있는 과학생회 선거는 투표하겠지만, 총학생회 선거는 별로 관심없다 3.8%
④ 기타 5.4%

4.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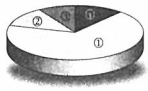
① 필요하다 95.8%
② 필요없다 4.2%

5. 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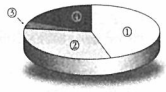


① 개인이 주장해서는 불가능한 요구들을 학교에 해주니까 21.3%
② 학생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니까 35.4%
③ 대외 사업을 추진할 때 대표가 필요하니까 7.1%
④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활동을 하니까 26.3%
⑤ 기타 10%

6. 학생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회가 하는 일은 있지만 지원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 12.5%
② 학생회가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 52.5%
③ 학생회 특성상 학생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12.5%
④ 기타 7.5%



① 학생회가 하는 일은 있지만 지원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 43%
② 학생회가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 36%
③ 학생회 특성상 학생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9%
④ 기타 12%

우리 학교 올해 학생회선거는 예년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연장선거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생회에 관심을 두고, 기대하는 학생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생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지난 2일과 3일(금) 양 일간 서울과 용인배움터에서 각각 120명씩 모두 2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95%가 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에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결코 학생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투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나는데 투표하지 않은 학생 중 70%가량의 학생들이 투표할 여건이 된다면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에서 결코 학생들이 선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난 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현재 학생회가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학생회가 주어진 역할과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한데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학생회가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응답자중 67%)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던 반면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언가 하는 일은 있지만 학생회에 지원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응답자중 43%)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용인배움터 학생회가 등록금삭감 투쟁이라는 사업을 통해 1년간 학생회 중심 사업을 학생과 괴리시만 서울배움터 학생회는 이에 비해 1년의 흐름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학생회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생회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회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은 주관식이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내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썼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중간고사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학생회의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 것에 비해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실천에 옮기는 활동이 너무 빈약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한 사안 역시 단순히 학내 사안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과목이나 시청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바램을 적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에서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과학생회보다는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단과대학 선거보다는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 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보다 총학생회 등 상위 학생회를 통해 바꿔내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대학생회나 총학생회 선거에 비해 과학생회 선거가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된다. 실제로 서울배움터는 중국어과 등 일부 큰 과를 제외한 작은 과들은 선거가 언제 열리는 지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는 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가 학생회 자체에 회의를 느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학생회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알려는 노력과, 학생회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을 이끌며 하는 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투표율로 나타난 학생들의 무관심은 학생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류재석 기자 solbakken@hanmail.net

공 고

2000학년도 전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과자격 : 제2학년 진급대상자로서 34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 총평점평균 3.50이상인 재학생.

※ 다음의 경우는 전과할 수 없음.
- 복수학과에 이중지원한 자(이중지원자는 학과별 전과전형의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3개 학기 이상 재학한 자
- 휴학 중인 자 (단, 복학예정자는 전과신청 기간에 복학신청 한 후 지원 가능함)
- 비사범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 전과
- 입학당시 동일모집단위(계열, 학부) 내 전과
- 캠퍼스간 전과

2. 선발기준 : 학과에서 선발기준을 정함 (학업성적 총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포함할 수 있음)

3. 전과시행 일정
(전과 전형일의 시간은 학과에서 정하여 고지함)

구 분	일 시	장 소
전과원서 접수	2000. 1. 27(목) ~ 1. 28(금)	학적과(용인 교무처)
학과별 전형	2000. 2. 11(금)	지원학과
전과확정자 발표	2000. 2. 18(금)	학적과(용인 교무처)

4. 지원방법
가. 구비서류 등 :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사진 1매(3㎝×4㎝), 전형료 10,000원
나. 신청자는 전과원서(사진부착)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학적과(용인캠퍼스 학생은 용인 교무처)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함.
다. 해당학과에 전형 방법 및 시간을 확인하 후 접수증을 지참하고 학과별 전형에 응시함.

5. 유의사항
가. 전과생은 일부 인정되는 교양학점 및 자유선택학점을 제외하고는 전입학과의 1학년 전공과목을 포함한 전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과생은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또한 전적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다. 전과로 인한 등록금차액은 바로 납부하거나 환불받아야함.

6. 학과별 선발인원 : 학적과 및 용인 교무처 게시판에 추후 공고함

1999. 12

교 무 처 장

신간안내

● 실용 루마니아어
이문수교수 지음(1999. 9월. A5신. 13,000원)
이 책의 특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루마니아어를 보다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장에선 루마니아어의 철자법과 기초 회화 표현들을 그에 상응하는 한글표기법(발음)과 함께 제시하였고, 본문에선 초급편과 상급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마지막 부분에선 루마니아어의 기본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는 점 등이다.

● 한국문학의 이해
김형필교수외 지음(1999. 9월. A5신. 8,500원)
이 책은 한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우리문학의 소양습득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한국문학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고전, 소설, 비평, 시, 이상 네 분야에 치중하였다. 소설과 비평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었고, 고전은 방대한 사료를 집약했으며 시는 저항 시를 위주로 풀어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었으면 한다.

● 마인원서강독(Membaca bahasa melayu-Indonesia)
고영훈교수 지음(1999. 8월. B5. 8,000원)
이 교재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여, 외국어를 습득하려는 방법을 지양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현지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지역의 민담, 언론, 단편소설, 예술, 공문서,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각 과마다 연습문제를 수록하였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심도있게 학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남아학총서 라오스·캄보디아
양승윤 · 차상호교수외 지음(1999. 8월 A5신. 9,000원)
총 9명의 필진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동남아의 '미래국가'로 설정하여 이 두 나라의 국가개요 · 역사 · 경제 · 불교문화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루 다루었다. 동남아 미래국가로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이다. 이 책은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남아학총서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
양승윤.김영애교수외 지음(1999. 6월. A5신. 9,000원)
이 책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동남아의 종교문화를 폭 넓게 다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가 국가발전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름하게 한다. 태국의 불교(제1장)와 이슬람(제2장)을 필두로 하여,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체성과 조직을 3장과 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5장과 6장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이슬람국가를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으며, 7장에서 필리핀의 종교를 다루고 있다. 제8장과 9장은 동남아의 힌두교 개관과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힌두문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증면 재판에서는 베트남의 유교와 국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 <실용외국어회화 10> 독일어회화
신형욱교수 지음(1999. 8월. B6. 9,000원)
이 책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독일어 표현들을 정리한 책이다. 발음표기는 가능한 한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했다. 기본표현과 대화, 그리고 활용예문 등을 구분, 제시하여 단계별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세계문학총서 12> 사면(赦免)(아란편)
서대그 헤더아트 엮음/ 김영연교수 옮김(1999. 8월. A5신. 9,000원)
이란의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서데그 헤더아트의 문제작인 이 작품은 단편모음집으로 그의 운명론적인 사고와 심성을 특유한 감각의 언어로 묘사한 심리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주인공으로 그들만의 고독과 외로움은 한실을 도피하므로 위로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작가는 자살을 또다른 삶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사면', '언니', '남편을 잃은 여인', '살아 있는 사자'는 여성들이 겪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화를 이슬람적인 배경으로 회화시켜 울 수 조차 없는 처절함과 애틋함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더러 이쁜'은 주인공인 그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슬픔 때문에 생의 의욕을 잃고 고뇌하며 토로한 고백을 키우던 앵무새가 의미없이 따라하는 지저귐과 주인공의 죽음으로 조화시켜 삶의 아이러니를 암시하고 있다. 그의 소설들은 죽음과 삶으로 구성된 대칭구조로, 인생이란 운명대로 이어가는 여정으로 상징하고 있다.

2000년 학생회 선거를 평가한다

12월 3일(토) 늦은 14시 현재. 분석 가능한 전국 115개 대학 총학생회 선거 상황 집계 결과. 97개 대학이 당선자를 가려냈고 15개 대학은 투표율 미달,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선거가 연기되거나 무산됐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이와 관련해 선거 상황 분석을 통해 올해 선거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탄압속에 비운동권 대거당선

저조, 학생운동 대중화 절실히 요구돼 교육 투쟁 큰 쟁점화, 연대투쟁 진행할 터

등으로 정상적인 간부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매년 신입생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학생운동을 좌경, 폭력세력으로 매도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은 여전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당선자 변재훈 군(법학 3)은 "지난 2년동안 정권의 탄압에 의해 학우들은 한총련이 뭔지 학생운동이 뭔지 생각해 보기 전에 일방적인 잣대로 학생운동에 대해 무조건 반감만 갖게 됐다"며 "선거 때도 우리는 한총련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며 학생운동의 필요성과 성과를 학우들과 함께 합의해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우들에 대한 믿음은 학생운동이 건재할 수 있는 힘이고 담당한 총학생회의 기반"이라며 학생운동 활성화, 대중화를 위해 더욱 학우들과 함께 해야함을 시사했다.

올해는 예년의 후보자 구속 등 정부가 눈에 보이는 탄압보다 대학담국이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방식이 훨씬 늘어났다. 물론 한국해양대 민족해방계열 후보에 대한 연행기도나 광운대 민족해방계열 후보를 비롯해 선거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연행한 후 조작사건을 만들려했던 등의 사건이 사전에 폭로되는 등의 탄압은 여전했다.

대학담국이 조직적으로 학생회선거에 개입한 흔적은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경기지역의 ㅎ대에서는 학생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법대 교수들까지도 지적하는 개표 절차 상의 문제를 무시하는 일까지 있었다. 같은 지역의 ㅇ대 대학담국은 학생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선거를 주관하고 운동권 후보에 대해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충남의 ㅎ대와 서울의 ㅅ대는 학점조항과 학기조항 등 예년부터 교육부가 학생지도대책에서 학생간부기준으로 내놓은 케케묵은 조건을 적용해 민족해방 계열 후보의 입후보를 막거나 방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금권선거를 비롯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를 않았다. ㄱ대의 경우 한 후보측이 학생회비를 내어만 유권자격을 주는 시행세칙을 이용해 학생회비를 대납하고 투표할 것을 요구했던 문제가 불거졌고 강원지역의 ㄱ대는 한 투표함에서 투표자수보다 몇십표나 많은 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개표를 강요한 후 당선을 공고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선거는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절반 이상의 대학이 연장투표에 들어갔으며 미달로 선거가 무효되거나 연기되는 대학도 많았다.

이에 대해 고려대 총학생회 당선자 정동희 군(기계공학·4)은 "그동안 운동권 학생회는 학내에서 학우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 주로 학외 투쟁을 전개하면서 그만큼의 투쟁을 학내에서 풀지 못한 것이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학부제를 비롯한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한 대학의 현실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학우들이 학생회의 필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도 90% 이상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몇 대학 학보사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투표율 미달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은 역으로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학생대중의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선거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올해 상황에서도 교육문제는 가장 큰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등록금 문제를 우선으로 해 두뇌한국21, 국립대민영화 등의 사안들이 계열을 초월하여 학생대중의 가장 절박한 요구로 모아졌다는 것이 일반의 분석이다. 그 가운데서 그동안 학생운동진영이 교육투쟁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한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올해 교육투쟁을 주도했던 후보진영이 대부분 당선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 당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민중적 교육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승훈 군(정외 4)은 "15% 등록금 인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담국에 맞서 방중부터 학우들과 학내에서부터 대중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교육대책위나 한총련 학자위와도 함께 연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철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영남대 후보들은 공동성명서 발표로 서울대 후보들은 합의를 거쳐 일간지를 통해 철폐 공동투쟁 등을 이야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선거를 테러하라!

각 학교의 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출마자 연행, 학교측에 의한 선거탄압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들 사례를 알아보고 선거탄압의 원인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광운대

공대학생회장 출마예정자 연행, 3명 재판회부 중

지난 11월 3일 공대 학생이 종로3가 서울시경소속 보안수사대 요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된 것을 시작, 총 6명의 공대학생과 1명의 공대출신 군인이 각각 홍제동 대공분실과 기무사에 끌려갔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기소유예로 풀려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은 구치소로 이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본보 749호 참고)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중에는 단대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출마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이무진(화공 4)군은 "공권력에 의한 학생운동 탄압 양상 외에 우리학교는 내년 모집단위 광역화가 실시되고 그 중 공대는 준비되지 못한 학습환경 속에서 심한 충돌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한 공대를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을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광운대는 단과대 선거는 마무리된 상태며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내년 3월로 연기되었다.

서강대, 서울여대

학교측 선거 불인정 학생회 약화 음모 제기…

서강대, 서울여대는 학교측의 선거 불인정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우선, 서강대의 경우 학교측이 99년 총학생회장 조영권(물리 4)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스크린쿼터 사수'의 기조로 개최한 시민영화제가 학교측의 허락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했기 때문이다. 서강대 학교본부측은 이외에도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 현재 총학생회에 출마한 두 선본 모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학생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총점평균 2.0이상 △이번 학기 12학점이상 등록 △학교로부터 징계 받은 경력이 없을 것 △형사처벌 경험이 없을 것 △품행이 방정할 것 등의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조영권군은 "지난 학기 학생회의 총장실 점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앞으로 있을 등록금 삭감 투쟁도 막아보자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여대도 비슷한 성적 제한, 학년제한(6학기 등록자, 3학년만이 출마 가능)규정을 명시해 현재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중 기호 2번을 불인정, 선거관련 선전물들을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 중 학내에서 '김정일 장군의 좌우명'이라고 적힌 괴삐라도 발견돼 공권력 개입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경대(구 안성산업대), 부산교대

학생처 선거 개입, 법정 소송 건 상태

이들 학교도 '학생처의 선거 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경대의 경우는 특이하게 선거관리위원장이 학생처장이다. 이 규정은 안성농업전문대 시기에 있었던 것이 단 한번의 개정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한경대는 이에 따라 선거 전반의 관할을 학생처가 맡고 있다. 올해의 경우, 선거일정 확정과 자격심사 및 기호선정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또한 학생처가 결정한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투표율의 경우, 대부분 대학들이 50%를 넘지 못하면 연장 투표를 하는데 비해, 이 대학은 투표율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또한, 무효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올해 선거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입후보자의 표차가 6표밖에 나지 않았는데도 당선인정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효표가 '자의적'으로 해석됐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돼 현재 법정 소송까지 간 상태다. 부산교대 또한 총투표율 61%, 지지율91%로 당선자가 확정됐음에도 학교당국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민주적 학칙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장서윤 기자 oedae98@hanmail.net

학과(전공) 선택 지원서 접수

계열(학부)별로 입학한 현재 1학년 학생에 대한 "학과(전공) 선택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기간내에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임의로 배정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계열(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으로 2000학년도 제1학기 2학년 진급대상자
2. **접수기간 :** 1999. 11. 29 (월) - 12. 10 (금) … 10:00 ~ 16:00
3.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장소 :** 해당대학 교학과 (컴퓨터용 싸인펜 개별 지참)
4. **학부(전공) 배정원칙**

대학	학부·계열	학과(전공)	배정인원	배정원칙	비고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50 50 50	1.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2. 1학년 학업성적 상위자 순 3. 입학시 수학능력성적 상위자 순	학과정원대로 배정
상경대학	상경계열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90 80 90	〃	〃
인문대학	인문학부	철학전공 사학전공 언어학전공	40 40 40	1.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2. 1학년 학업성적 상위자 순 3. 계열(학부) 공통 교과목중 해당 전공 성적 상위자 순	전공별 110%까지 배정
경상대학	경상계열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50 50 40	1.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2. 1학년 학업성적 상위자 순 3. 계열(학부) 공통 교과목중 해당 전공 성적 상위자 순	학과정원대로 배정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40 40	〃	전공별 110%까지 배정
	물리·화학부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40 50	〃	
	환경·생명공학부	환경학전공 생명공학전공	50 50	〃	
정보산업공과대학	전자제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50 50	〃	전공별 120%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60 50	〃	

5. **배정시기**
   1999학년도 제2학기 성적확인 기간 (2000. 1. 14 (금)이 끝난후 공고 및 본인에게 통보
6. **OMR카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고 표기가 잘못되었을 때 긁거나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새카드에 재작성 할 것.
   나. 제1지망과 제2지망을 동일한 학과(전공)로 표기하지 말 것.
   다.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임의로 배정함.
   ※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시 서울 학직과·용인 교무과에 반드시 "학과(전공) 선택 지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1

교 무 처 장

공 고

1999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시험기간 :** 1999. 12. 15 (수) - 12. 21 (화)
2.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시함
   나.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물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3. **추가시험**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유고결석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 1999. 12. 22 (수) ~ 12. 23 (목).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 1999. 12. 27 (월)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 A0이하 (학칙 제36조)

교 무 처 장

200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신청 접수 안내

우리대학교 2000학년도 제1학기 성적 장학금 및 고시장학금 수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학생은 기일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99. 12. 1(수) - 12. 17(금)
▶ 신청자격 : 2000학년도 제1학기 등록예정인 자로 장학금 수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장소: 각 학과장실
▶ 신청서류 : 1. 장학금수혜신청서 (각 학과장실 비치)
2. 기타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성적장학금**
● **고시장학금**

▶ 신청기간 : '99. 12. 1(수) - 12. 17(금)
▶ 신청자격 : 1999. 6. 1 - 1999. 12. 31 기간중 국가에서 행하는 고시(사법, 행정, 외무,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입법에 1차이상 합격하여 2000학년도 제1학기 등록예정인 자로 장학금 수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장소 : 학상처 장학계
▶ 구비서류 : 1. 합격확인서
2. 성적 증명서

● **공통사항**

• 2000학년도 1학기에 외부장학재단 및 보훈, 학생회간부, 교내부서근로 등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자는 위 장학금 수혜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999.
학 생 처 장

혀마리 생생

우리말 살려쓰기

회장 → 으뜸빛

첫째가는 것을 꼽을 때 으뜸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버금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회장을 으뜸빛으로
부회장은 버금빛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으뜸빛, 버금빛을 도와 일을 함께 하는
벗비리(집행부)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총무는 살림빛,
알리는 일을 하는 선전부장은 알림빛,
배움을 지도하는 학술부장은 배움빛,
지료 따위를 얻는 편집부장은
얽음빛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부장이라는 딱딱한 표현을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되는말글살이우리말연구회〉

'알짜' 방학보내기

"무작정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방학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방학을 맞아 YBM영어특강, 운전면허특강을 준비한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장 김경민(정보통신공 컴퓨터공학 2)군의 말이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두달 남짓한 긴 겨울방학을 의미있게 보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학교차원에서 준비된 다양한 각종 외국어 특강, 컴퓨터 특강, 운전면허특강, 어학연수, 다큐제작과정 등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각종 토익, 토플,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과 한자특강, 컴퓨터 특강 등이 다양한 시간대와 수업내용으로 방학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토익특강 3만원, 일본어 특강 2만5천원, 컴퓨터 특강 5만원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개강은 12월 27일이며 접수는 구내서점, 컴퓨터매장, 외대서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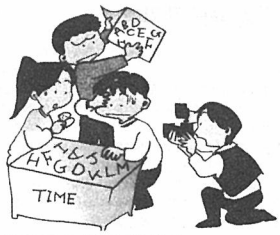
용인배움터 생협에서 추진하는 YBM 영어 특강은 토익과정과 영어회화과정으로 8주간 진행된다. 특히, 집에서 가까운 어느 대학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먼 거리의 학생들에게 학교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17일(금)까지이며, 생협사무실(학생회관 1층), 또는 제일은행 앞 접수대에서 문의 및 접수를 하고 있다. 또한 학기중에 진행했던 운전면허특강도 계속 열릴 예정이다.

그 외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영상문화실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연수와 원맨다큐제작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영상문화실 조관연 교수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면 연수 외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을 못한다"며 어학연수를 받고 남는 시간에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1월에서 2월초 4주동안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그 지역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접수는 11일(토)까지이며 영상문화실 조관연교수(0335-330-4849)에게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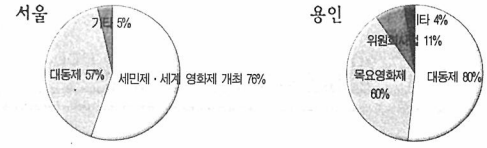
용인배움터 중국어과에서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상해광화진수학원에서 5주동안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는 수업 뿐만 아니라, 태국권 유수 배우기, 주말에는 소주, 항주, 남경 등을 여행하는 등 다른 연수에서 얻을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과회장 권순삼(3)군은 "현지사정을 직접 느끼고 경험을 쌓는 것이 그동안 책으로 배웠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전한다. 이번 연수는 3학점이 인정이 되며, 내년부터 다른과 학생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진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과 사무실(0335-330-4232) 또는 중국유학원(02-3476-2165)으로 하면 된다.

자칫하면 쉽게 나태해지고, 시간에 무디어지는 겨울방학. 저렴한 가격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강, 연수를 잘 활용하여 알찬 방학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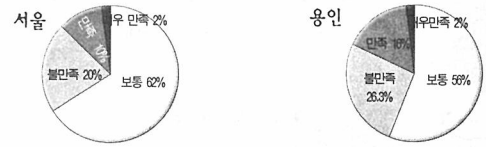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1. 학내 문화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복수응답가능)



2. 1년동안의 문화사업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양배움터 문화정책 평가

일상의 문화가 필요할 때

서울 - 무난했다는 평가, 용인 - 위원회 체계 세우는 과정

대동제, 풍물굿, 세민제(전)…. 올 한해 배움터 내 다양한 문화행사는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각 문예패들은 얼만큼의 성장을 이루었을까? 본보에서는 중간호를 맞아 양 배움터 1년간의 문화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로 지난 1-2일(목)양일간 각 배움터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표 참조)

편집자주

서울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학문화'.

33대 총학생회 문화국에서 들고나온 기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학생회와 개인의 요구간의 접합점을 찾으려는 문화국의 의지를 그대로 나타낸 말이다. 이런 문화국의 의지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공감을 얻어냈을까?

학생들은 1년간의 문화사업 공약이 어느정도 지켜졌냐는 물음에 대해 잘 모른다(38%)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보통'(32%)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62%), 불만족(20%)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46%), 그때 그때의 행사위주로 일상적인 문화활동 보장이 안된점(25%) 등이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애초에는 4학년 문화제, 일상적인 문화 토론회 등이 제기 되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문화국장 윤창호(서양·이태리어 3)군은 "그때 그때의 사업위주로만 기다보니 학생들을 대학문화의 연속적인 생산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전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역시 '사람의 부족' 문제다

올해 문화국은 집행위원 없이 국장 혼자 진행시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른 성과로 '외대문예갈래협의회'가 인준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노래,종물,영상,율동 등의 중앙패들을 관장하는 기구가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 문예패 전망 문제 등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엔 미흡하다.

외대풍물패연합의장 강석천(사범·독일어교육 3)군은 "문예패들의 요구, 전문적인 기능성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된 조직인 만큼 각 단위패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 학생자치기구로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용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학내문화사업으로는 '목요영화제'가 꼽혔다. 목요영화제는 작년 총학생회 영상위원회에서 주관, 개최하다 올해부터는 영상 동아리 '빛모습'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배움터와는 달린 용인배움터에는 '문화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율동위원회, 한국민속 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존재한다. 위원회는 작년 처음 제기된 기구이다. 관련 과학회, 동아리를 모두 포괄하는 기구로 '학생들의 문예에 대한 관을 직접 제안하고 그 의견이 바로 중앙으로 소통될수 있게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이 위원회 사업은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단계다.

동아리 한알, 탈, 비나리와 서양학대 풍물패연합을 포괄하는 한국민속위원회 위원장 홍진윤(서학·독일어 4)양은, "아직까지 각 위원회장의 연석회의 체계가 잡히지 않고 위원장들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 등 인자문제와 함께 틀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민속위원회 이름으로 민속주간, 전문성 강좌 등을 함께 진행해 오기도 했다. 홍양은 "내년 민속패 연합'으로 가기 위한 단계다"고 덧붙인다.

이는 율동위원회도 비슷한 실정이다. "아직 2년째라 미숙하지만 내년쯤 되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실제로 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율동위원회의 경우, 지금 새로 중앙 율동패를 건설하려는 중이다.

유일하게 동연에만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이유다.

용인배움터 역시 세민제 상설기구화, 20주년 기념 사업 등등의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올해 양배움터 문화정책의 경우-물론 잘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공약성'으로만 그친 것이 많아 한편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걸 무조건 시도해 보는 것이 진보가 아니라 지난 걸 잘 끝마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더 나은 진보 아닐까요"라고 설문 조사 담시 총학생회 문화정책에 바라는 점을 적은 한 학생의 말을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장서윤 기자 oedae98@hanmail.net

생활시평

이제, 문화 '씨앗'을 가꾸어 보자

다가올 2000년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여의도 어느 전광판엔가는 '문화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글귀와 함께 2000년까지 남은 날짜가 하루씩 내려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문화의 세기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토대 속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에 혹자들은 문화가 가장 최상에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담론들은 어떠한지.. 단지 '허황된 꿈'에만 부풀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얼마전 끝난 문화부 국정감사. 언론장악 문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속에서 파행적으로 굴러진 가운데 문화예산 1%확보와 새천년준비위원회(새준위)사업관련 논의들이 진행됐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우선 문화예산 확보의 경우 애니메이션 등 소위 '돈되는' 문화산업에 편중되었다는 점, 새준위 경우는 '평화의 열두대문 짓기'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구체적 실현성이 필어지는 관념적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이 더 먼저인가?

게이있는 문화인들을 추동, 자극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찾는 일 먼저인가, 외적 팽창이 먼저인가?

돈이 돼는 문화만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장상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지 않않다. 새천년, 21세기 무수한 장미빛 미래에 대한 논의들이 범어지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문화적 마인드 키우기'에는 소홀해 있지 않은지.

씨를 뿌리고 소중히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열매를 어떻게 바란 값으로 팔아치울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문화적 토대를 닦는 일이다. 기형적으로 오락, '상업지본과 결탁한 문화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한국의 문화지형에서 순수 예술인을 육성하고 어린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쥐어주는 일 말고 '문화의 세기'를 맞기 위한 시급한 준비가 또 있을까.

장서윤 기자 oedae98@hanmail.net

생활바꿈이

담뱃재는 재털이로 가고 싶대

담배 한 개비를 뽑는다.
불을 붙여 문다.
후~~~ 하고 연기를 내뿜고
재를 털러 손가락을 구부리는 순간, 잠깐!
당신의 손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먹다 남은 빈 캔, 유리병, 플라스틱 통 등은 아닌지요
과방, 동아리방에서, 강의실 복도에서 너무나 쉽게 '편의주의'에 물든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캔, 유리병에 재를 털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말글 응화 마당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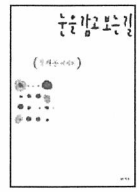
황종희 지음
홍익출판사 7,000원

명이대방록

"명이"는 "밝음이 손상된다"는 의미로 명나라가 오랑캐에 의해 멸망위기에 이른 것을 빗댄 말. "대방"은 때와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을 품고 있다. 저자 황종희(1610~1695)는 명나라 말기~청나라 초기의 3대 학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중국의 루소"로 불리는 그는 언젠가 현명한 군주가 경세제민책을 구할 것에 대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명나라 재건과 한족의 복권을 준비하며 위기속의 국가경영법과 제왕학, 군신론, 경세치용론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뒷날 청말 혁명의 원동력이 됐고 한 때 금서로 묶이기까지 했다.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실사구시와 민본사상으로 요약된다. 그는 실질적인 치용을 중시했다. 공담을 배척하며 실천을 소중히 여겼다. 덕을 닦는 행위를 심학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몰락 직전의 봉건 전제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왕과 신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본, 귀민사상을 강조했다.



정채봉 지음
샘터사 6,500원

눈을 감고 보는 길

지난해 가을 간암 선고를 받아 투병생활에 들어갔던 아동문학가 정채봉씨가 건강을 되찾아 에세이집 '눈을 감고 보는 길'을 펴냈다.

에세이집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투병 이야기엔 생명과 가족, 이웃에 대한 감사와 무한한 애정이 묻어난다 나머지는 고향, 어린 시절, 가족, 피천득 선생 등 친지에 대한 단상, 그리고 IMF 구제금융 여파로 고단하게 사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설달 그믐날 우연히 공중전화 부스에서 흘러나온 '너희 남매 옷은 사서 소포로 부쳤다. 다음 명절때까지 희망을 갖고 살자'라는 남자의 힘없는 목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는 그의 따뜻한 감상에선 속기없는 종교적 청정함도 느껴진다.

최길성 지음
아세아문화사 25,000원

새로 쓴 한국 무속

최길성 교수(일본 히로시마대학)의 새로 쓴 한국무속'은 제3세대의 한국무속연구를 민만치 않은 수준에 올려 놓았다. 이 책은 그의 샤머니즘 연구업적의 국제적 위상만큼 현장조사와 사회인류학적인 안목으로 탄탄한 체계와 구성을 이루고있다.

저자는 끊임없는 조사연구의 성과에 60,70년대의 업적을 첨가하여 한국무속을 알기 쉽고 체계적이며 세계적인 시야에 들어오도록 가다듬는다. 1,2부로 나눠진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세습무와 강신무의 사회인류학적 심층분석으로 무당에 대한 사회계층적 맥락이 검증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신분과 기능을 분리-구별하는 사회구조를 반영한다는 특이한 관점을 보여주며 그런 무당과 같은 조선조 팔천(八賤)의 카스트적 신분제도의 혈통이 굿 의례를 이루는팀구성의 친족관계까지 분석해 내고 마침내 폐쇄집단으로서 무당사회의 은어(隱語) 발굴까지 이르게 한다.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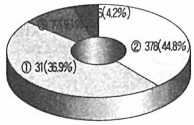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감독:박기복

탑골공원이나, 역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랑자들을 보면 흔히 눈살을 찌푸리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고,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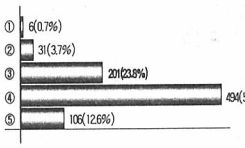
이 영화는 탑골공원에서 살아가는 두 명의 부랑자들의 삶과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 부랑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을 보면서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과 그들을 주변인으로 만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그 부랑인들이 바로 당신이고 또 나일 수 있는 것이다.

〈외대영상사업단〉



통일을 이루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① 폐지해야 한다 ② 독소조항만 개정해야 한다.
③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 ④ 기타



현재 남한은 북한문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돼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일본문화 개방처럼 북한 문화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한다
⑤ 적극 반대한다

남북 문화교류 관련 대학생 의식조사

북한 문화 개방해야 한다 67%

대학생 61% "북한 잘 모른다"-북한 위성방송 시청 국보법적용방침 철회해야

새천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바로 '통일'이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남북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문화분과에서는 11월3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40개 대학 8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남북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자라는 입장을 보였고, 북한문화개방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자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남북간 교류에 대해 대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남북간 교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3%가 '적극 찬성', 4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교류를 통해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한편 '북한에 대해 잘 아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57.8%(잘 모른다 52.7%, 매우 잘 모른다 4.9%)가 답했다. 특히 '남한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그렇지 않다', 12.6%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국가차원에서 북한을 바로 알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북한의 영화나 책 등 북한의 문화를 얼마나 접해 보았을까? 이에 응답자의 60.9%가 접해보지 못했다고 답해 통일해야 할 또하나의 조국인 북한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접해 본 응답자(37.8%)들은 북한문화에 대한 느낌에 '예술적 감상이 풍부하다', '전통문화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생소하다', '사회주의 사상이 짙게 나타난다' 등등 각기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북한의 문화중 가장 접하고 싶은 문화로는 영화나 만화, TV, 음악 등 대중문화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책(베스트셀러)이나 성문화, 전통문화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북한위성 TV방송을 개방했다. 북한에 대해 알수 있는 창구가 전무했던 지난 기간에 비춰보았을 때 이번 개방은 가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응답자들 역시 '찬성한다'는 답변이 무려 78.9%나 돼 이번 개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같은 북한위성TV방송 시청이라 할지라도 친북·이적목적성을 띤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와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에 각각 46%, 17.4%가 답했고, 이적·친북세력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침이다는 의견은 32.9%에 머물렀다.

또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통일농구대회, 남북대중가요 한마당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체육문화교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24%)는 의견에 비해 응답자의 74.1%가 '체제와 이념, 이익 여부를 떠나 서로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이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이후 체육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2월 진행될 예정인 통일농구대회에 기회가 된다면 가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꼭 가겠다'(14%) '가겠다'(39.6%) '보통이다'(30%), 가지 않겠다(14.7%)는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문화교류에 힘입어 문화계 일각에서는 '교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문화의 벽을 아예 허물어 버리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영화 음반 책 등 북한문화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67.5%(적극 찬성 14%, 찬성 53.5%)나 되었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북한문화를 개방했을 시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6.7%), '그렇다'(22.1%)라고 답해 교류를 넘어 북한문화 개방도 적극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북한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주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에 적극 찬성 14.2%, 찬성 44.4%, 반대 7.4%, 적극 반대 1.8%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방북신청을 냈을 때 매번 '불허'를 내려 대학생들의 교류를 막아나서는 통일부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남북교류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문화교류나 문화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그것은 당장 북한문화를 접하고자 해도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북한문화를 접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이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응답자의 44.8%가 '독소조항만 개정', 3.69%가 '완전 폐지'라고 답한 반면 현존유지는 9.1%뿐에 되지 않았다.

전대기련 문화분과 공동기자단

만나보기-문화교류 추진하는 이종상(서울대)교수

이데올로기 넘어 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첫걸음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지난 8월 31일부터 일주일간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등지에서 북한의 천혜절경을 화폭에 담아온 이종상 교수(서울대·동양화과)는 이번 방북이 남북 문화교류의 한 획을 긋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한다. 그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소감과 더불어 남북문화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천지에서 해 뜨는 것을 봤다. 신의 불 햇바다 같은 그 뜨거운 해를…"

이 교수에게 천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6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벽을 북한에서 맞이했었다. '참 통일하고 싶다'는 것을 그 새벽에 느꼈고, 이 호쾌한 동틀을 제자들과 그리고 남쪽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21세기를 맞이하고 싶은 심정이 절절했다"라고 그는 방북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을 말한다.

이교수가 미술인으로서 북한과 교류를 진행한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72회에 걸쳐 동경에서 남북교류 전시회를 진행했다. 일본의 '미술세계'라는 회사와 함께 주최한 이 행사는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미술인들 스스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10년이 넘게 진행됐음에도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민간 교류를 보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협상을 위한 문화교류만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정부의 문화교류는 간헐적이나 무산되기 쉬운 교류가 많았다"고 말한다.

이번 방북은 10년 넘게 교류를 진행한 원로작가 10명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북한에서 초대장을 보내음으로써 이뤄졌다. "교류전시회였지만 함상 북한 작가들은 오지 않고 작품만 동경으로 왔었다. 그러다가 97년에서야 북한 작가들이 동경으로 왔었다. 하지만 갑자기 잡수함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 작가들이 지척에 있었음에도 통일부의 반대로 우리들은 그들을 만날 수 없었다. 끊임없이 만나기를 고대한 끝에 결국 올 8월에 방북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방북을 통해 이 교수 등 10명의 원로작가들은 만수대 창작사-일종의 '화원'으로 3천 여명의 작가들이 있다- 작가들을 만나 묘향산과 금강산의 그림을 그리고 평양 등의 도시를 돌아봤다.

"북한의 전통문화에 뿌리내린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다"이교수는 북한문화를 보고 난 느낌을 이 한마디로 일축했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과의 동질성을 찾는 것보다 이질성을 찾아내 '우리는 다르다'라는 점만 머리 속에 담는데 급급한 것 같다. 실제로 제주도와 전라도, 그리고 서울의 언어와 음식 등이 모두 다른 것은 이해하면서 평양의 만두국에 만두가 냉면 그릇만 하다거나 함경도의 깍두기가 손바닥만 하다면 '역시 다르군'이라고 말한다. 어떻게든지 동질성을 많이 찾아내야지만 통일은 빨리 다가올 것이다. 또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체제'의 이질성과 '문화'로 인한 이질성을 구분할 수 있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북한의 미술에 대해 그는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관점에서 북한은 비록 서예나 문인화 등 부르조아가 향유하는 미술은 사라졌으나 전통미술을 보존하려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화라는 새로운 그림도 생겼다"라고 말한다. 또한 북한에는 도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묘향산 보현사에 서산대사 영정이나 팔만대장경 영인본이 다른 안전장치 없이도 보존돼 있어 이교수는 "북한은 문화재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남북한 모두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민족문화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만 할뿐이다. 21세기를 살아갈 청년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속에서 우리의 문화, 민족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한다.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문화는 서로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통일의 발걸음이라는 그의 말. 이제는 이질적이든 동질적이든 우리와 손맞잡아야 할 북한을 바로 보기 위해 누구든지 정부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천지에 찾아가 그 호쾌한 동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대기련 문화분과 공동기자단

더 나은 나라

공안내

그여자

안정된 중류기정의 한 행복한
여성이 어느 날 뜻하지 않던 암초에
부딪힌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놀라움과 분노, 초조,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음으로
그 여자의 자기 성찰이 시작된다.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우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내려고 한다.
결국 오랜 회의와 절망의 수렁 속에서
그 여자는 다시 어두운 현실로 돌아온다.
구원은 누구에게도 청할 수 없다.
미래의 문은 자기 스스로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문이 열리리라는
것을 자각한다.
프랑스 지성, 시몬느 드 보봐르의
소설을 토대로 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여성의 현실에 맞게 불문학자
오증자 교수가 1인극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지난 86년 산울림 소극장에서
초연되어 이땀에 '여성연극'이란 말을
최초로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기정주부들을 흥분시켰던 문제의
연극 〈위기의 여자〉를 모노드라마로 새
롭게 무대화하는 손숙의 1인극 〈그 여자〉
는 다시 무대로 돌아온 우리나라의 대표
적 여배우 손숙씨의 무대복귀 첫작품으
로 다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소 : 산울림 소극장
연출 : 임영웅
출연 : 손숙
일시 : ~ 2000년 1월 23일
시간 : 화 목 일 : 3시
수 금 토 : 3시 / 7시
(단, 매주 월요일 쉼)
입장료 : 일반 20,000원 학생 12,000원
(사랑티켓)
문의전화 : 02) 334-5915 / 5925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용인배움터 헝가리어과 원어연극반

진경애
〈동구·헝가리어과 조교〉

우리는 연극 마니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프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무엇을 잘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곳이다.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 끊임없이 방황하는 곳이라고 할까?

헝가리어 원어연극반은 1996년 겨울, 김보국('89) 선배님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소수정예의 학회였다. 처음에는 배우들이 소품이며 음향이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몇 명의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공연을 준비해야 했다.

그 첫 공연이 바로 1997년 11월에 무대에 올린 "외르머니 이스트반"의 『토트네 가족』이라는 작품이었고, 이 적은 인원이 만든 작은 무대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해서 다음 해에 20명이 넘는 신입 회원이 가입했다.

이해 1998년11월에 공연한 페렌트 몰나르의 "성에서의 연극"이라는 작품에서는 더 블(트리쥽) 케스팅으로 20여명의 배우들이 열연을 했다. 이 공연으로 말미암아 저희 연극부는 89학번에서 98학번에 이르는 학회원으로 구성된 단단한 학회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해 1999년 제 3회 공연에서는 또 한번 외르머니 이스트반의 "토트씨 가족"을 이문동에서 공연을 갖는 시도를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회 때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헝가리어과는 올해로 11돌을 맞이하였고 헝가리 원어 연극반은 만 3살이 되었다. 전통도 없고 노 하우도 없지만 그렇다고 헝가리 원어 연극반에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극은 혼자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배우들이 있으면 소품을 챙겨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도 있어야 한다.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로가 이해해 주고 애정을 갖는 일이 공연을 갖는 것보다 선행되는 곳이 바로 헝가리어 원어 연극반이다.

문화단신

서울

상경대 노래패, '맥박' 공연 열려

상경대 노래패 '맥박'의 99년 두 번째 공연이 지난 2일(목)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렸다.

'제자리 찾아가기'란 주제로 '꿈은 아닐까야' '내일의 소중한 꿈을 위해'를 비롯, 총 12곡이 공연 되었다.

특히, 집회 장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일반화생들이 보는 노래패에 대한 인터뷰, 공연영상을 선보임으로써, 다른 공연과 차별성을 두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패장 이영식(경영 2)군은 "대학 노래패는 어떤 곳이고,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진지한 분위기였다"며, "관객들과 좀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했던 것이 아쉽다"거 밝혔다.

목요음악반의 스물일곱번째 정기공연 열려

음악감상동아리 목요음악반의 27번째 정기음악 감상회가 지난 2일(목) 교수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바흐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공연은 2시간동안 '마태수난곡', '골든베르그', '관현악주곡' 등 총5곡이 연주되었는데 한 곡을 원래 고전음악에서 사용되던 악기와 새로운 악기로 연주한 곡을 비교하여 들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바흐의 생애와 주제, 음답방식인 '푸가 기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회장 김윤곤(법·법학 2)군은 "이번 공연에서는 연주도 미흡했고 완성된 작품을 연주하지 못했는데 다음 공연부터는 원곡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문방송학과 노래패 새날 공연

'일탈, 반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로 신문방송학과 노래패 새날의 7번째 정기공연이 대학원 소극장에서 지난 3일(금)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구시대의 답습을 탈피하고 민중가요도 대중성을 갖자'는 목적으로 열렸다. '통일, 민중의 삶, 민가를 까발려주며' 각각 소주제가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통일진군가', '언제..', '내가 불러야 할 때', '탈피' 등의 창작곡과 '별밤', '나의 소망' 등 총 10곡이 선보였다. 또한 '발해를 꿈꾸며' 같은 대중가요를 불러 형식의 틀을 깨고자 했다.

행사를 준비한 패장 김민주(2)군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갖음과 동시에 중심을 가지고 개성적인 모습을 가진 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동아리 기록문학회 전시회

"과거 기록문학회, 현재 기록문학회, 그리고 미래 기록문학회를 본다"는 기치로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동아리 기록문학회의 전시회가 열린다. 오늘 6일(월)부터 8일(수)까지 3일간 학생화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학내 활동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준비되었다. 97년 출간되었던 '부끄러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학교 가는길' 등 발간물과 졸업선배들 취재기, 얼마전 개국한 인터넷방송, 그리고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분명선언' '리다르' 등 해외 우수 작품과 자체제작한 '아리랑'이 하루 한차례씩 방영된다. 회장 문용희(동학 마인어 3)군은 "인물, 역사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과 숨겨진 진실을 보게한다는 점이 매력"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기록문학회의 그간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혼자보기 아깝다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학작품, 서예,
미술,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학보에 실어보십시요.

마감은 금요일 오후까지구요.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로 가져오거나 컴퓨터 통신(나우누리, 하이텔(oedae))으로도 원고를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학술단신

한국동유럽·발칸학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동유럽·발칸학회/동유럽·발칸연구소(회장 우리학교 플란드어과 정병권 교수)'는 오는 11일(토) 오후 2시부터 대진대학교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2일(목)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유럽과 체제변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위덕대 최연구 교수가 발표자로, 현도사회복지대 윤도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행사당일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본관앞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학교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버스를 이용할 참가자는 미리 연락)

연락처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산 11-1 대진대 홍보실
전화 : 0357-539-1114, 1081

우리학교 중국어과 철학학회 심포지엄 열어

우리학교 중국어과 민중철학 연구협회 '타오름'은 오는 6일(월) 오후 6시 교수회관 소극장에서 6번째 심포지엄을 갖는다.

'노동과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청년진보당, 민주노동당, 정치실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치세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학회장 신성일(동양·중국어 2)군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정치세력의 쟁점을 한 자리에서 토론해보려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초청강연 진행

우리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는 오는 7일(화) 오후 3시 30분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우덕홀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제2차 세계대전과 중·동부유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연사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헬무트바그너 박사(Dr. Helmut Wagner)이다.

민족문학사연구소 공개발표회 개최

'민족문화사연구소'가 '한국문학에서의 모더니즘'을 주제로 공개발표회를 진행한다.

오는 18일(토) 오후 2시 이화여대 인문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공개발표는 인천대 이현식교수의 사회로 3장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하정일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학술단체협의회 '99 제4회 정책토론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다섯가지 이유"

첫째 - 민족반역자·부패 행위자들만의 보호법

정영태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영태 교수는 "만약 국보법의 존속과 적용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50년 이상 국보법을 존속시키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명제를 제시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국보법의 존속이유를 고찰했다. 정교수는 우선 "국보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실로 많다"라고 단언하고 수많은 생명상실(국보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68만 2700여명의 구속 등)과 인권유린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설명했다. 또한 △집권세력에 도전적인 진보(또는 계급)세력을 해체, 약화해 민주주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점 △친일세력과 탈법부패집단의 온존을 가능케 한 점 △진보인사에 대한 탄압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대립 심화, 군비팽창 가속화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91-96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5.3%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공안기관이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같은기간 보건예산 1.8%,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7.9%)

이에 반해 "국보법의 재정과 적용으로 해서 지켜온 국가의 지배질서는 친외세 민족반역자나 탈법·인권유린·부패·비합리적 행위자들의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것이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소위 '이익'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러한 국가의 지배질서는 과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라고 반문한다.

둘째 - 온갖 사회부조리의 원흉으로 단죄되어야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

강경선 교수는 "헌법제정과 함께 헌법시행의 준거틀로써 서둘러 제정된 국보법은 헌법의 일반정신을 분단한국의 특수상황에 구체화시킨 '국보법 정신'으로 대체시키고, 이 지침에 따라 각종 국회입법과 행정집행을 후속시켰다"고 주장하며 "국보법이 국정전반을 통제하는 '헌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신정권과 계엄령 등 특별히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긴급체제가 갖추어져 있을때 국가보안법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강교수는 70년대 이후 국보법은 사회안전법, 집시법, 경범죄처벌법 등 일련의 법체계로서 언론과 사상, 정치적 자유를 탄압했으나 80년대에 들어와 정치적 탄압의 위세가 극에 달했다고 진단하며 "인권은 '총체성', '상호의존성'을 갖는 것이어서 정치적 인권의 탄압은 결국 인권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탄압으로 확산되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반공법 시대에 있었던 '반공임시특례법'과 '녜모규제법'에서부터 최근 죄형법정주의의 자의적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보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악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고찰한 강교수는 "국보법은 정권에 대항하는 모든 영향력 있는 집단과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국보법은 우리나라 정치분야의 후진성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온갖 사회 부조리의 원흉으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 '애매모호성'을 내세운 인권탄압의 도구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변호사는 "국보법 개폐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대변인 명의를 통해 91년의 국보법 개정으로 문제점이 거의 손질되어 남용의 여지가 없어졌으며 지금에 와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남용의 위험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개정는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국보법 존속론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장변호사는 91년 국보법 손질 이후의 내용과 적용 사례를 각종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91년에 개정된 내용이 여전히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국보법의 규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남용의 가능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고무·찬양, 혼란을 조성할 우려 등 불확정 개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이 애매모호하여 거의 무한한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어왔다"고 진단하고 "특히 뚜렷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수반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앞면서'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변호사인 나로서도 어떤 기준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한 구속수사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불법도청 △민간인 사찰 등 국보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사례와 그 부당성을 다양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종부하게 제시했다.

넷째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보호망

이재영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정책국장)

"모든 법은 특정한 집단 또는 계급의 특정한 사회활동을 제어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고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주된 대상은 누구인가?"

이재영 정책국장은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공안당국은 '노사분규 배후조종'이라는 혐의를 앞세우고 보수언론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도하곤 한다"며 노동자가 국가보안법의 큰 희생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노동관련자가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해 주목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 "노동운동이 활발하고 파업건수가 많은 90년대 초반에는 전체구속자의 60-80%를 노동관련구속자가 차지하고, 노동운동이 침체한 근래에 들어서는 10-20%가량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파업의 93%는 임금인상 요구 등의 경제파업으로 국가보안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으로 인한 노동관련 구속자가 많다는 것은 국보법이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손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국장의 주장이다.

한편, 이재영 정책국장은 노동관련자 구속비율이 높은 다음해에 임금인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설명하며 "이는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들이 실제로는 노동조합 일상 활동의 선진부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섯째 -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화의 정책실장)

김창수 정책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남한의 통일안보정책은 남북관계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성국가'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보법은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이른바 '유일합법정부론'을 들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감시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를 곡해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통일의 객관정세에 대해서도 "북미관계에서의 대화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객관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내부의 통일지향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국보법은 민족주체적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김정책위원장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로 전민족적 평화통일운동을 저지하고 있는 점 △학문적 상상력과 예술적 창의성을 가로막음으로써 통일국가 건설을 향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비를 가로막고 있는 점 등 국보법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김겸신 기자jaju97@hanmail.net

종합토론

학술단체협의회 제4회 정책토론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다섯가지 이유'의 사회를 맡은 카톨릭대 안병욱 교수는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종교인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세력은 존속이냐 개정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월라는 학단협 정책토론회가 국가보안법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각종 자료와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존속의 부당성을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증거들을 토대로 국보법의 인권유린 참상을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최근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폭행과 잠안재우기 같은 고문은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밝혔다.

인하대 정영태 교수는 "국보법이 생겨남과 동시에 유엔인권선언이 채택된지도 51년이 지났다. 거꾸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국보법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국보법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완전철폐의 움직임을 모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라는 것이 정교수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김겸신 기자 jaju97@hanmail.net

지버릇 개주랴

○…"미사일이 발사될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몇시간을 보내야할지도..." 등등의 와이 투 케이에 관련된 헛소문이 미전역에서 기승을 부려 사재기 등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이에 우리의 크로니클자, "남의 나라에 없는 미사일도 있다고 뻥치는 지버릇이 어디 가겠어..."

〈장〉

○…황수관 VS 구성애 '신비랑 건강학' 강의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가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 시의회 선거 전, 황 박사가 지역주민 3천 2백여명이 참석한 등반대회에서 대구시의회 의장 이성수 씨를 지칭하며 "대학 후배인데 큰 뜻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착했기 때문. 이에 시의회 의장 낙선자 재선거를 기대하며, 부라부라 구성애씨한테 전화를 건다.

"구성애씨, 내가 큰 뜻을 품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고 TV에서 한번만 말해 주소"

〈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각지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미국.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타국에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데...

크로니클자 왈 "어차피 도급은 오래가지 못하지, 우리도 주한미군주둔금 분담금 삭감투쟁이나 해볼까"

〈석〉

○…올해에도 어김없이 터진 음대교수 입시부정협의. 서울대 등 수도권 지역 네개대학 음대교수 4명 이상이 입시부정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검찰이 이들의 예금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다는데..... 이에 언제 외대에 들어올 지 모르는 박승준 왈, "외대에도 음대가 있어야 하는데....."

〈정〉

외대에도 음대가?

비둘기 칠판

이문동

□알립니다

· 제 35회 동계 외대 통역협회 외국어 강좌
언어: 영어, 중국어, 서반어, 일어, 독일어, 불어, 마인어, 이태리어
때: 1월 3일 1월 28일
접수기간: 20일(월) 31일(금)
접수처: 학관 204호 통역협회
문의: 961-4169, 963-6883, 968-6377
〈 외대통역협회〉

· 99학년도 2학기 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본교 재학생, 휴학생
인원: 2명
시간당 2500원
장학금은 2000년 3월 초에 지급됩니다.
〈도서관〉

· 99 정기 학술영화제
성, 혼돈,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때 : 6일(월) 사랑을 위한죽음, 로리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7일(화) 섹스, 거짓말, 글 렌 속은 글렌다, 감각의 제국 8일(수) 아모레 미오, Nowhere
곳: 대학원 소극장(6104)
〈영화 연구회 "물리"〉

· 제 18회 스키 강습회
때: 26일(일) 29일(화)
곳: 진부령 알프스 스키장
요금: 스키 미소지자 20만원, 스키 소지자 18만원
문의: 스키부실
스키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키부〉

□축하합니다

· 김명희 학우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밀레니엄 과회장님, 저희는 과회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룡성!
〈노래패 한울〉

□찾습니다

· 자취방 (여)
방 2개, 지상 같은 반 지하, 독립된 출입구.
외대 전철역에서 5분 거리 월세 23만원, 선불
연락처: 016-723-9790
방을 구하는 모든 여성들은 연락 주세요.
〈방 내 놓은 사람〉

왕산골

□알립니다

· 함께 합시다!
몸짓으로 말한다
몸짓으로 느낀다
몸짓으로 하나된다
중앙 몸짓패가 태어납니다. 신청서는 학생회관 208호로 많이 많이 써주세요.
연락처: 019-364-0847
〈중앙 몸짓패〉

· 마인어과 졸업생 환송회
때: 9일(목) 늦은 5시 30분
곳: 외대 라인
마인어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 19대 마인어과 학생회〉

· 경기 카니발합니다
때: 12일(토) 늦은 5시 30분
곳: 경기고 맞은편 카이로
20C기 마지막 경기 동문회에 많이 참여 해주세요.
〈경기고 동문회〉

· 고시반 모집
자격: 재학생, 졸업생
분야: 행정 ,외무, 사법, 기술, CPA
응시 일자: 7일(화) 늦은 6시 교양관 404호
문의처: 018-252-6981
〈고시반〉

□찾습니다

· 잃어버린 워크맨을 찾습니다.
검정색 AIWA를 어문관 401호에서 잃어 버렸습니다.
분실물 신고 센터에 꼭 넣어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기다리는 이〉

· 디스켓을 찾습니다. 빨강색 디스켓이에요.
제출 레포트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연락처: 016-692-4156
영어과 과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디스켓 잃어 버린 사람〉

· 눈물의 호소문
자주색 아이삭 지갑을 찾습니다.
신분증이라도 꼭 돌려 주세요.
연락처: 011-342-0088
〈눈물 나는 사람〉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80

사회단신

서총련, IMF 2년맞아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

지난 3일(금) 서총련 소속 8명이 미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기습시위는 IMF 2주년을 맞아 진행됐는데 시위에 참가했던 한양대 유환구군(16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결의서를 통해 "IMF의 본질이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 IMF 서약을 한지 2년째 되는 날 미국이 이 땅에 저질렀던 양민학살, 미군범죄, 전쟁책동 등을 생각하면 오늘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시위의 의의를 밝혔다.

기습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폭력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다음날 전원 훈방조치됐다.

범민련 북측본부, 김양무선생에게 치료제 전달

현재 직장암 말기로 투병중인 김양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에게 북측 범민련에서 보내온 암치료제인 한약제 '장명'과 인삼이 지난 1일(수) 도착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던 인삼 3상자와 1병에 70알씩 들어 있는 암치료제 '장명' 10병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경북대 옥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를 통해 들어왔으며 곧바로 김양무 부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치료제와 함께 보내온 편지를 통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활동을 하다 병을 얻은 사람에게 치료는 고사하고 탄압을 자행하는 남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등 각 계사회단체는 방북 촉구서한을 통해 '현정권은 더 이상의 반인륜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방북치료를 보장하라'며 현정권을 규탄하고 김양무 부의장의 방북치료를 촉구했다.

출판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실형선고해 물의

지난 3일(금)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서울지역출판노조 전 제3지부장)가 실형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작년 11월 26일 '마르크스 혁명적 사상' 등의 책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올해 1월 26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9일 또 다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사상 출판의 자유 쟁취와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출판의 자유보장과 홍교선씨의 무죄'를 강력히 요구했다.

홍씨가 대표로 있는 책갈피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이미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10여개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홍교선 씨의 구속사유가 된 책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IMF신탁통치 청산, 고엽제 살포·대학살 만행주범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그들의 학살·착취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IMF 2년 무너진 경제, 양민학살에서 고엽제까지… 참가자들 IMF 신탁통치 청산, 주한미군 철거 등 주장

▶1면에 이어짐

용산주한미군기지 앞에 도착한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각종 구호와 율동, 서명 등을 통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만난 시민 김종용(용산구, 상업, 55, 남)씨는 "용산이 내 일자리고 집이다. 노른자위 땅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은 미군기지를 볼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며 "미군에게 굽신거려야 할 것 같고 뭔가 꿀리는 기분이다. 생활적으로도 이런저런 불편이 있다"고 토로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에게 강씨는 "주한미군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은 익히 들어봤다. 미군기지앞에 사는 나로서는 그런 말들을 그냥 넘기기 힘들다. 물론 선한 미국인들도 많지만 장사를 정리하는 발시간에는 지나가는 미군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했다.

선전전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 본행사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강화남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미국의 경제침탈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의장은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은 IMF를 통해 우리를 약탈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우리나라 민영 기업은 공기업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돼 있지 않으므로 결국 해외매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유수한 우리의 기업이 양키놈들에게 팔려간다는 것"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통해 각계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엽제 살포·양민학살을 일삼는 미군은 더 이상 존속 이유가 없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열띤 발언을 진행했는데, 특히 행사 전날 미대사관 기습시위를 전개했던 서총련 소속 학생들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한양대, 고려대, 건국대 등 8명의 학생들은 3일(금) 미대사관 기습시위 도중 전투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풀려나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들 중 1학년인 99학번이 절반이상을 차지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 유환구(한양대 16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군은 "미국은 우리땅에서 분노할 만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 IMF 신탁통치 2년동안 우리의 모든 경제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 이땅에서 저질러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양민학살, 미군범죄, 전쟁책동 등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항의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유군은 "노예인 사람이 자신이 노예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영 노예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명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이후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주한미군기지를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열은 50m도 채 가지 못했고 전경들이 친 바리케이트 앞에서 행진을 저지당했다. 나아가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시위대의 뒤쪽에 공권력이 투입돼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한양대 1학년 한남학생은 "저기는 우리땅인데 저렇게 버티고 앉아 무소불위의 공권력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특히 대열의 뒤를 치려했던 공권력은 미군도 아니고 우리의 전투경찰이었다. 꼭 미국인 집을 한국개가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대회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미국에 의한 IMF 신탁통치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획득 △대학살 만행, 고엽제 살포주범 주한미군 철거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 민중은 앉아서 울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권, 미국과 일본에 아부굴종하는 정권, 민족의 경제를 다 팔아먹는 정권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는 정권이다"라고 밝히며 오는 10일(금)에 있을 '2차 민중대회'에 같이 동참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서울대 기자

김겸신 기자 jaju97@hanmail.net

공기업 매각에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전력범대위 김채로씨를 만나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나라 팔아먹는 일입니다"

신진호

'전력산업 해외·분할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전력범대위)'는 지난달 25일(목)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전력범대위 김채로(고려원자력지부위원장·45)씨를 만나 농성을 진행하게 된 이유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구안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농성을 시작한 것은 6개월 정도 되는데, 본사에서 농성을 하거나 국회 앞 농성을 하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주장의 내용과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게 됐다.

현재 전력산업 민영화 진행상황은?

지금 전력관련 회사는 모두 민영화 방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발전과 설비를 담당하는 한국중공업은 민영화 방침이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기공과 설계를 관리하는 한전기술주식회사는 조기매각 방침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밖에 원자력연료주식회사등 거의 모든 전력관련 회사가 민영화 방침이 내려져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는 '민영화로 분할매각을 한다면 시장경제의 논리를 통해 자연히 그들간에 경쟁이 붙을 것이고 그만큼 전기세가 인하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민영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공기업은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값싼 자재나 원료 등을 공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자재들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위한 기업들에 의해 전력의 값이 오를 것이다. 이는 필요한 전력을 누구는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누구는 많은 양을 받게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역량은 아무리 분할 매각을 한다고 해도 한국전력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떠 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히 해외 매각이 되는 것인데 해외매각이 된다면 에너지의 해외 의존률이 자연히 커지게 되고 나라의 기간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셈이 된다.

앞으로의 대응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함께 '전력산업 해외·분할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했고 이 힘을 모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신문광고 투쟁과 국회 앞 집회, 지역별 산발적 집회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 곳에서는 매일 자녀 결의대회를 하고 있고 그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대응은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한전민영화 안을 무산시켜내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 앞 농성과 천막농성 등의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기자의 눈

전국을 뒤흔든 농민들의 함성

나주, 해남, 진도, 화순, 광주, 담양, 함평, 고흥, 구례, 보성, 청원, 상주시 북부지역, 상주시 서부지역 등… 농민대회 개최.

지난 11월 한달 전국 각처에서는 농민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상정한 '전농 동시다발 시군대회'를 통해 농민들은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분노를 표출했다.

정광훈 전농의장은 "농촌의 제일 큰 문제는 농가부채"라고 잘라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고 왜 돈 빌려 쓰고서 안 갚으려고 하냐고 묻지만 생산비도 안 나오게 가격을 책정한 게 누구 책임인가를 따져보자구요, 우리 농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라고 밝혀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임을 주장한다.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현재 농촌은 호당 평균 5천 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땅 농민에게 희망이 있는가? 수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짐을 지고 빚 갚으라는 독촉에 두려움이 앞서고, 인간답게 살지 못함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도망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적이라는 장관이 들어서도 농민들의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전농 특별결의문 중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는 뉴라운드(WTO 차기 농산물 협상)를 통해 농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이 우려되면서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

얼마전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농산물 개방 핏덩이 설득을"이라는 칼럼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기전에 안그래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비싼 농산물을 드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해를 구하라'는 내용을 싫어 각계의 지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농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UR협상 실패의 결과로 재벌과 국가, 상인들에 의해 값싼 외국농축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와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농촌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아는가? 97년 IMF사태가 터졌을 때 200억불에 달하는 무역수지적자 가운데 농축산물의 무역적자가 120억불에 달했던 사실을 아는가? UR협상 결과 비교우위론에 의한 개방화로 농업이 황폐화되고 농촌이 붕괴되면서 IMF사태를 초래할 정도로 국가경제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농민들의 이 질문에 현 정권은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김겸신 기자 jaju97@hanmail.net

학회 활성화 기획광고

학회가 살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일 수 없습니다

'나' 아닌 '우리'로 보낸 대학생활
학회가 준 깨우침이었습니다.
대학과 사회에 대한
작은 관심만으로도 뿌듯했고
이런 관심들은 모여 삶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세미나 준비에 뜬 눈으로 지샌 밤들
그리고 학회지를 낸 뒤 들뜬 뒤풀이의 기억들
4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학회 사람들
내 소중함의 전부입니다.

여럿이 고민하고 여럿이 개척하는 대학생활
학회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대안입니다.

학생회와 생사를 같이했던 공동체, 학회
학회가 살면 학생회 사업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학회강화가 학생운동 대중화의 첫걸음입니다.

아름다운 집단주의

창조적 실천활동 개발

전문성 강화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1999년 12월 6일 753호 외대학보

평론

세기말 한국 영화의 고찰

최근 한국영화는 기이한 병에 걸렸다. 물론 이 병에 대한 예고는 예상되었지만, 마주하는 관객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자본은 충무로 영화의 메카로 등장을 선언했고, 기존의 영화에서 만들어졌던 SF 영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영역을 무한대로 늘려가는 이유는 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지향하는 것은 '블럭버스터'. 이제 우리는 심심치 않게 영화 광고에서 '블럭버스터'라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홍수를 이루어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한다. 이 '블럭버스터'라는 말의 기원은 할리우드에서 시작된다. 관객수를 대규모로 동원하는 통계적인 말이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획과 홍보에서부터 관객을 대규모로 유도한다는 동기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영화적 흐름은 흥행 실적에서 보면 그 규모가 주식시장을 방불케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제임스 카메룬, 마이클 베이 등의 할리우드 감독들은 이 장르를 형성시킨 장본인들이다. 이러한 '블럭버스터'류의 영화는 영화사들의 이윤과 관계자들의 재미와 하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이 상충하면서 영화 시장에 가장 큰 장르로서 자리잡았다. 아무래도 한국영화는 이 할리우드식 대규모 영화에 도전장을 낸 듯 싶다. 그렇다고 해서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그 도전장은 할리우드의 흉내를 전제하며 얼마만큼 할리우드 '블럭버스터' 영화에 근접한가를 측정해 달라진 내용을 가진 듯 싶다.

사상 유례없는 흥행실적을 올린 강제규 감독의 '쉬리'는 우리나라 영화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소품의 사실화와 치밀한 시나리오 구성,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편집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점이다. 그래서 관객들은 '쉬리'를 보러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쉬리'의 열풍은 다른 측면에서 한국 영화를 고정화시켜 버렸다. 할리우드식 기법이 한국 배우들에 의해 소화되었을 때 흥행이 된다는 개념이 공식화되어 버렸다. 할리우드식 기법이 한국 배우들에 의해 소화되었을 때 흥행이 된다는 개념이 공식화되고, 그 뒤에 여러 편의 영화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을 보였다. 그러나 수없이 재탕 되어 교과서처럼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은 대량의 영화를 보아왔던 관객들을 우롱하여 흥행에 실패를 하였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자귀모'는 이러한 실패 영화에 대표작들이다. 적당히 컴퓨터 기법을 살리고 인기 배우를 써서 드라마화시키는 듯한 주제없는 졸속한 영화들은 이미 영화사 100년을 경험한 관객들에게는 지루한 눈요기가 될 뿐이다.

이제 한국 영화는 두가지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위에서 말한 할리우드식 거대 자본 영화이고, 다른 영화는 저자본 애정 영화이다. 이는 영화가 점점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국 사회가 현실에 대한 도피를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준다. 여기에 코메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심형래의 '용가리'가 등장하자 영화계의 신자식인이 무엇인가 라는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거대한 몸집으로 모든 것을 삼켜 버릴듯한 광고를 한국 전 영토에 퍼트리고, 깐느영화제에서 홍보되어 가계약을 다량으로 이끌어낸 심형래 감독의 전략은 경제적위기를 달리는 정부에게 더없이 좋은 표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심형래에게 신자식인이라는 감투를 주었다. 물론 이 신자식인은 흥행에 성공한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에게 에칭처럼 붙어 다녔지만, 지식의 측정을 돈벌이와 동일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영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형성시키는 촉진제를 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점에서 '용가리'는 새로울 것이 없는 상품이다. 아니 엄격하게 말한다면, 양간의 모양과 이름만 신선할 뿐이다. 일본산 '고지라'와 미국산 '고질라'의 중간적인 형태라는 것은 영화를 접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일본산 '고지라'는 이러한 괴수 영화의 원형이며, 원폭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다. 반면에 미국산 '고질라'는 일본의 '고지라'로부터 관광을 얻어 컴퓨터 기법으로 탄생한 괴수이다. 미국의 '고질라'는 난폭하고 일본의 것보다 빠르고, 핵에 대한 경고보다는 할리우드 영웅을 만들어내는 데 치중을 한다. 절충적인 '용가리'는 기존의 괴수와 오락 영화의 전형적인 면을 답습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괴수로 등장한다. 무대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 아니며, 우리는 영화를 자막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어린이 용이기에는 지나친 폭력이 들어있고, 기존의 '블럭버스터'라기에는 자본에 비해 어색하다. 이 모호한 영화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개척을 홍보로 설정했다. 캐릭터 상품화,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고, 심지어 식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등장시켰다. 심형래는 영화 감독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가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은 '용가리'는 영화가 아니라, 충분히 광고된 상품으로 거듭난다. 또한, 이 여파는 홍보비가 영화 제작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례를 가져옴으로써 영화의 질적 수준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다.

일련의 한국 영화에서 오는 분위기는 영화가 인간 정신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예술의 가치가 자본의 축적과 동일시되는 인식 전환도 비인간화되어가는 현대인의 비참한 현실이다. '쉬리'나 '용가리' 등이 보여준 한국 영화의 희망은, 희망이라 부르기에 너무나 절망적인 요소(할리우드식 영화의 모방, 영화의 상품화)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관객들은 그들의 행각에 대해 칭찬과 더불어 비판을 가해야 함이 분명하다. 지식을 자본의 축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이러한 영화적 현상들은 앞으로 보여줄 감독들에게 새로운 압력일 것이다.

80년대 한국 영화가 활성화되면서도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스타시스템'과 잘팔리는 상품적 영화에 온 힘을 다해 제작했던 실수 때문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다시 '블럭버스터'와 '애정 영화'를 축으로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할리우드를 베끼고 얄팍한 고민과 단순한 관점이 들어있는 '블럭버스터'와 삼각관계도 모자라 다각관계를 그려내는 졸속한 '애정 영화'가 한국 영화의 미래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대기업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온 한국은, 또 대기업의 영화참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술분야의 질적 파괴를 가져올지 모른다. 자신의 느와르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그래도 한국 영화에 남아 있는 대중 영화의 희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유령' '자귀모' '뵈마록' 등 엉성한 구성의 영화는 계속 개봉되고 있고, '러브' '카라' '질주' '주유소 습격사건' '노랑머리' 등과 같은 배우들의 성적 매력을 이용한 내용없는 영화들이 관객들을 조롱하고 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제작자와 감독이지만, 영화사를 엮어가는 일은 관객들의 몫이다. 포장만 잘되고 문제의식과 작가의식이 없는, 적어도 있어야 할 한국적 요소를 반공정신을 내세워 치장을 하는 우울한 한국 영화들이 세기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반성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강력한 외국 영화에 국내 영화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이유는 SF와 같은 효과보다 감독의 문제의식이며, 고전적 요소를 고집하는 감독에 지식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영
〈사월문학반, 자연·화학 4〉

사진수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괌 비행기 추락, 씨랜드 화재, 인천 호프집 대참사… 연일 끊이지 않고 터지는 대형사고.
사고가 터진 당시에만 쏠린 관심이 집중된다. 뿌리깊은 관료주의로 인해 안일한 행정관리, '내 일이 아닐거야' 굳게 믿는 안전 불감증으로 횡소에 우리는 사고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게 아닌지….
만약 당신이 타고 있는 기차에 불이 난다면…?

-노량진 역에서 불이 난 새마을호에 불을 끄고 있는 모습

사진부 huodeng@hanmail.net

평론- 체코문학과 쿤데라

"작가는 인간 영혼의 기사"

체코는 1천여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엔 종교적 열정 때문에 참다운 고대 문학을 꽃피우지 못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 아래 민족 문학이 거의 말살되기까지 했으나, 1차 대전 후 민족 자결의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나라와 문학을 되찾은 후에는 왕성한 문학 창작을 통해 유럽 문학에 기여하려고 노력해 왔다. 불행하게도 2차 대전 한때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고 전후에는 사회 체제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련을 겪었지만, 새 문학 창조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전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재능있는 여러 작가들이 이념 문제에 침묵하면서 어린이 문학에 노력을 기울였다. 올브리흐트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들 덕분에 1950-60년대 체코 어린이 문학은 유럽 어린이 문학의 본보기가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스탈린 사후, 해빙의 물결은 체코 문학과 문화 전반에 밀려왔고,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호전된다. 2차 대전 후에 교육받고 활동을 시작한 새 세대들이 '프라하의 봄'이란 말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 새로운 문학의 꽃을 피운 것이다. 이들은 서방 등 세계의 현대 문학 조류들을 받아들이면서 창작에 힘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내놓기 시작했다. 체코 문학은 이 시기를 디딤돌로 삼아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문학 조류에 적극 참여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 자신 공산당원인 작가 바츨라프 '도끼'라는 작품에서 공산당원인 아버지와 아들간의 이념적 차이와 갈등을 그린 소설을 발표했지만, 스스로 1968년의 '2천어 선언'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흐라발(Hrabal)은 구어체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유머러스하면서도 과이한 코믹 스타일의 소설들을 쓴다. 그의 '엄밀히 감시받은 열차'는 성불능의 한 젊은이가 그것을 극복하고 드디어는 나치 독일의 군수열차를 폭파하여 영웅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좌절되자 국외로 이민 또는 망명하여 체코어와 현지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해온 대표적 인물로는 슈크보레츠키(Skvoredcky)와 쿤데라(Milan Kundera, 1929~)가 있다. 슈크보레츠키는 '비겁자' 등으로 체코 문단에 두각을 나타냈고, 1968년 캐나다에 이주한 뒤에는 헤밍웨이식 리얼리즘의 영향 하에 여러 대작을 발표했다. '비겁자'에서는 젊은 재즈 음악가가 체코슬로바키아 해방에서 소련군이 수행한 '영웅적' 역할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최근작 '인간 영혼의 기사'는 공산주의 자체를 풍자하고 있다. 이 제목은 스탈린의 유명한 말, 즉 "작가는 인간 영혼의 기사"로서, 기사가 기계를 만들 듯 작가는 반드시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새 인간의 정신을 창조해야 한다"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다른 주요 작품으로는 예술과 정치에 대한 미술적인 우화이자 체호프에 비견되는 시적 효과를 자아내는 '저음 색소폰'과 '새끼 사자' 등이 있다. 그레이엄 그린은 슈크보레츠키를 폴란드 태생의 망명 작가 콘라드와 비교하기도 했다. 슈크보레츠키는 1990년대까지 현재 부인과 함께 터론토에서 '68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망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출판하는 한편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쿤데라는 1975년 이래 프랑스에서 체코어와 프랑스어로 작가·비평가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쳐 왔다. 그는 체코 작가 중 가장 널리 읽히는 사람이다. 희곡으로는 쿤데라의 '열쇠의 주인들'이라는 작품으로 대표될 수 있는 체코 현대극은 서유럽의 강한 영향을 받아 부조리 연극의 수작(秀作)을 많이 낳았다. 특히 클리마의 희곡 '성'은 카프카와 유럽 부조리극의 영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체코 부조리 희극의 대표적 작가인 하벨은 '정원 파티'와 '비망록'으로 유럽 연극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극들은 루마니아 출신 이오네스코와 폴란드의 므로젝등의 영향 하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간이 느끼는 부조리를 희극화했다. 이오네스코가 주로 말장난에 집중한 반면 하벨은 언어와 정치적 부조리 상황을 잘 연관시키고 있는 면에서 한층 발전된 부조리 극작가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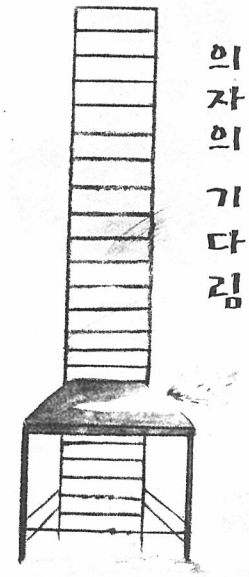
쿤데라의 문학세계

쿤데라는 소설 창작에 몰두, 1963년 단편집 '우스꽝스런 사랑'을 발표했다. 1967년에 내놓은 '농담'은 그에게 문명(文名)을 가져다 주어 체코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도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다. 이후 외국에서 출판된 작품으로는 '인생은 다른 곳에', '이별의 왈츠', '웃음과 망각의 책'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 등이 있다. 문학론인 '예술로서의 소설'에 이어 최근에는 프랑스어로 소설 '불멸',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 '느림' 등을 썼다. 필자가 90년, 94년, 97년, 99년 여름 프라하에서 개최된 세계 체코어문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슈피리티교수 등에 의하면 쿤데라는 벨벳혁명이후 자유화된 조국 체코에도 별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

쿤데라는 최근 몇년 계속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매스컴의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진지한 작가로서 몇년에 걸쳐서 내놓는 소설들은 나올 때마다 완숙한 작가로서 세계 문학 비평가의 주목을 계속받고 있다. 쿤데라의 소설 중 가장 재미있다고 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외대 출판사)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프라하의 봄'과 그 이후이며, 공간적으로는 프라하와 그 주변의 온천장, 시골 집단농장, 그리고 주인공들이 망명 생활을 하던 취리히 등지이다. 주된 내용은 체코 공산주의의 민주화 과정이 소련군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난 후 주인공들이 존재의 위기감에 휩싸인 채 섹스와 사랑(즉 육체와 영혼)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김규진
〈체코어과 교수〉

외 대 학 술 문 학 상 공 모



기다림...
아직도 기다릴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기 새해 아침의 눈부신 의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비워둔 이 곳.
어서 이 의자를 당신의 용기와 도전으로 채워주십시오.

학술·문학상에 공모하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외대학보사는
지금 행복합니다.

· 문 학 상 : 시(3편이상)·소설·수필·희곡·비평 등
· 학 술 상 :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 마 감 일 : 12월 24일
· 문 의 : 서울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961-4152, 4466
용인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0335-330-4112
· 유의사항 : 작품은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 상 금 : 당선작 40만원(시-30만원)·가작 20만원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